



[국내·해외은행 비교] '예대마진' 안주하다 핀테크 失機 '금융의 삼성' 멀었다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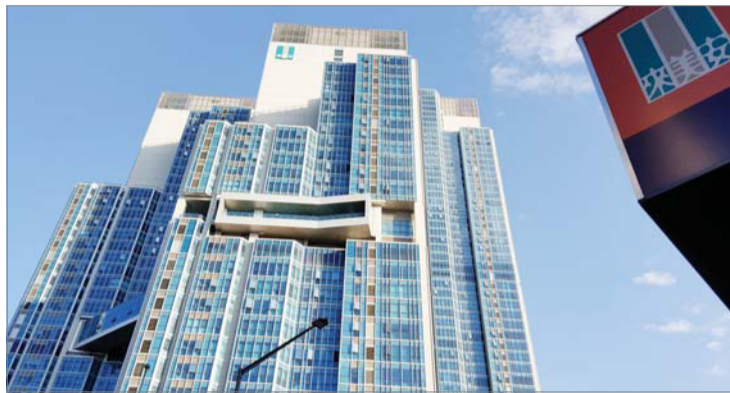
Economy

코스피	2295.26 (+1.75)	코스닥	775.52 (+5.72)
금리 (국고채 3년)	2.13 (변동없음)	환율 (원·달러)	1118.70 (-1.50) (7월31일)

## 박원순 “용산·여의도 통개발” 이후… 자그나면 호가 5000만원 ↑ “강남보다 용·여” 부촌지도 바뀐다

〈용산〉 〈여의도〉

‘2030서울플랜’ 발표에 아파트 가격 고공행진 매물가 오진 오후 달라 매물회수 등 관망 분위기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래미안첼리투스’ /채신화 기자

“어제 호가가 16억원이었던 ‘ㄱ’아파트를 오늘 16억5000만원에 다시 내놨어요. 하루만에 5000만원을 더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서울 용산구 이촌동 A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재개발 계획’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이다. 개발이 시작되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될 것이란 전망에 매수 움직임이 분주하다. 하지만 보유자들은 아파트 매도가격을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는 추세다.

### ◆ 주말없는 부동산 중개업소… ‘변동 심해’

지난 7월 29일 일요일 오후에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

었다. 통상 중개업소는 주말에도 문을 열고 하지만 이촌동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내방객이나 전화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중개업소 유리 벽면에 빼곡히 붙어 있는 매물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걸음을 멈춘 이들도 자주 눈에 띄었다. 인근 B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발언 이후 매일 물건을 확인하고 있다”며 “(매물 가격) 하루가 다르고 오전, 오후가 또 다르다”고 했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여의도를

국제 금융 중심지로 개발하고 용산에 대형 광장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여의도·용산 개발’ 청사진을 밝혔다.

여의도는 새로운 업무와 주택지로 바꾸기 위해 ‘여의도 일대 종합적 재구조화 방안(여의도 마스터플랜)’을 내놓기로 했다. 이 소식에 전해진 이후 여의도 재건축 단지 매매가가 뛰기 시작했다. 재건축 아파트는 호가가 수 억원씩 뛰며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용산역도 마찬가지다. 박 시장은 용산역은 서울역까지 지하화해

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단지와 쇼핑센터를 들이고 각종 광장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계획에 여의도와 용산 일대 집값이 급격히 오르자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도시 계획은 관계부처와 협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여의도·용산에 종합적 도시계획이 필요하고 권한은 전적으로 서울시장에 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에 일대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이촌동 C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 입김 한 번에 줄줄이 매물건이 보류되고 있다”며 “어제 들어왔던 매물도 오늘 아침에 빠졌다. 변동이 심해서 집주인에게 전화해 아침, 저녁으로 확인할 때도 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주말 중개업소에서 확인한 아파트 매매 물건들을 30일 오후에 다시 문의하자, 절반 가량이 철회됐거나 계약금이 입금된 상태였다.

〈6면에 계속〉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40도 육박하는 서울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31일 오후,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인 2시에서 3시 사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을 찾은 동남아 관광객이 손 선풍기를 들고 열을 식히고 있다. 이날 광화문에 세워 둔 간이 온도계는 39도를 넘어서 40도를 육박했다. /연합뉴스

### 韓 경기 적신호

## 최장 ‘마이너스 늪’ 설비투자… 생산도 감소

(4개월)

### 통계청 ‘6월 산업활동동향’

6월 산업생산이 석달 만에 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설비투자 감소세는 18년만에 가장 길게 이어지고 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는 전월보다 0.7%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지수는 3월 0.9% 감소에서 4월(1.4%), 5월(0.2%)엔 증가했다가 다시 -로 돌아섰다.

광공업 생산은 전기·가스업에

서 증가했다. 하지만 제조업과 광업이 줄어 전월보다 0.6% 감소했다. 3월 -2.1% 이후 가장 저조한 수치다.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전자 부품 등에서 증가했으나 자동차, 화학제품 등이 줄어 전월보다 0.8%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는 1.1% 늘었다.

통계청 어운선 산업동향과장은 “생산과 출하가 조정을 받으면서 재고가 늘었다”며 “자동차는 수출이 잘 안되다보니 재고가 쌓이지만 반도체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5%로 전월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보건·사회복지, 금융·보험 등이 늘어 0.2% 늘었다.

또 소비 수준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6% 증가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2.8%)는 감소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0%), 의복 등 준내구재(1.4%) 판매는 늘었다. 서비스업과 소비 증가는 월드컵 특수와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을 입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줄어 전월보다 5.9% 감소, 4개월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설비투자 감소 폭은 3월 -7.6% 이래 가장 컸다. 설비투자 4개월 연속 감소는 2000년 9~12월 이후로 처음이다.

건설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실적을 금액으로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건축과 토목 공사 실적 모두 감소, 전월보다 4.8% 감소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기업경기실사지수)

## 내수부진·인건비 상승에 BSI, 17개월 만에 최저

### 한은 ‘7월 BSI·ESI’

미·중 무역분쟁, 내수부진, 인건비 상승 등의 여파로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업황 BSI도 동반 하락했다.

BSI는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기준점 100 이하일 경우 경기를 긍정적(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기업경기실사지수(업황BSI) 추이〉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대비
· 전산업	77	79	71	80	75	-5
· 제조업	74	77	78	80	74	-6
대기업	82	82	81	83	77	-6
중소기업	63	70	74	77	72	-5
수출기업	82	83	79	84	81	-3
내수기업	69	74	77	78	71	-7
· 비제조업	79	80	84	80	76	-4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7월 31일 발표한 ‘2018년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7월 전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5포인트로 전월

대비 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2월(75) 이후 1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올해 3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하다 6월(80) 하락 전환한 뒤로 2개월째 하락세다.

7월 제조업과 비제조업 업황 BSI는 동반 하락했다.

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 대비 6포인트 하락한 74포인트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하락 반전했다. 다음 달 업황전망 BSI(73)도 지난달 전망 대비 7포인트 내렸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6포인트, 중소기업이 5포인트 떨어졌다. 기업 형태별로는 수출기업이 3포인트, 내수기업 7포인트 각각 내렸다. /김희주 기자 hj89@

## 삼성, 실적 신기록 주춤 반도체 신화는 계속된다

### 2분기 영업이익 14.9조원

### 메모리 부문 실적 견인

### IM·디스플레이는 부진



삼성전자가 다소 주춤한 2018년 2·4분기 실적을 31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으로 매출 58조4800억원, 영업이익 14조 87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8000억원 증가했다. 전분기 대비 매출은 3%, 영업이익은 8000억원 줄었다.

2분기 실적을 견인한 요인은 메모리 부문으로 호조를 이어갔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판매가 감소해 최고 실적 경신은 중단됐다.

반도체는 데이터센터와 고용량 스토리지용 제품의 수요 증가로 인해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1X 나노 기반의 64GB 이상 서버DRAM 등 고용량·고부가 제품 판매에 주력한 결과로 제품 경쟁력이 강화됐다.

디스플레이는 플렉시블 OLED 패널의 수요 둔화와 LCD TV 패널의 판매 감소로 인해 실적이 감소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모바일기기(IM) 부문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수요가 주춤한 가운데 갤럭시 S9의 판매가 감소해 실적이 하락했다. 장비 분야인 네트워크에서는 주요 해외 거래선의 LTE 증설투자 확대에 실적이 개선됐다.

소비자가전(CE) 부문은 월드컵 등 스포츠 이벤트 특수를 타고 QLED TV 등 고부가 제품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 TV 부문 이익은 개선됐지만 생활가전 분야는 에어컨 수요 둔화로 실적이 하락했다.

2분기 원화는 달러 대비 약세였으나 유로·해알 등 기타 통화 대비에 비해선 원화가 부분 강세를 보여 세트 사업을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약 4000억원 수준의 환손실이 발생했다. 한편 삼성전자의 2분기 시설 투자 규모는 8조원이었다. 사업별로는 반도체 6조1000억원, 디스플레이 1조1000억원 수준이다. 상반기 누계로는 반도체 13조3000억원, 디스플레이 1조9000억원 등 총 16조6000억원이 집행됐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 학연·지연·혈연... '그들만의 리그'로 꿈아가는 직장

## 실패의 경제

### 렌트시킹과 집단이기

(지대추구)

#### (11) 직장에도 연고주의

#국내 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A씨(34세)는 3년전 입사한 신입사원 B씨의 모습을 보고 허탈감을 느꼈다. 주변에서 흔히 말하는 '임원 라인'으로 대학을 갓 졸업한 뒤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 B씨는 안하무인 태도를 보였다. 직장 상사들의 지적에도 제멋대로 행동을 하고 예의는 찾아볼 수 없는 말투와 업무 태만 등 사내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B씨는 입사 후 3년이 흐른 뒤 자신의 적성에 맞지않는다며 사표를 제출하고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 A씨는 "취업준비생(취준생)들은 피땀을 흘리며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고생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낙하산으로 들어와 피해를 끼치고 적성에 안맞다고 유학을 떠나는 모습을 보니 허탈했다"며 "우리 의식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혈연·지연·학연으로 엮인 고질적인 연줄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채용비리 근



#### 국내기업 각종 채용비리 만연

#### 중앙·지방·유관 공공기관 점검

#### 1190곳 중 946곳 비리 연루돼

#### 공정한 기회 잃은 취업생 분통

절에 나서고 있다. 이에 국내 기업들도 부랴부랴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으로 오랜기간 쌓여온 잘못된 관행과 악습, 부패와 비리 등을 단절하기엔 역부족이다.

최근 강원랜드, 수서고속철도(SRT)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규모 채용비리가 적발된데 이어 4대 시중은행에서도 채용

비리가 드러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올해 초 중앙·지방·유관 공공기관 1190개를 점검한 결과 80%에 해당하는 946개가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 공공기관은 93%가 채용비리로 얼룩졌다. 정부는 총 83건을 수사 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했지만 불법채용의 고리는 쉽게 끊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해마다 대규모로 채용을 시작하는 3월과 9월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천 인력이 밀려들어온다. 이들은 부모의 영향력에 따라 분류된다. 1차 서류전형 우대를 해주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서류전형부터 면접까지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합격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학

점·영어·면접 점수 등 취업 스펙을 키우고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취업생과 달리 지원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사실상 합격한 것과 다름없다. 즉 내정자 상태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의 일부로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각종 청탁 관행으로 적폐 중의 적폐다.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악질적인 반사회 범죄 중 하나로 분류된다. 취업의 문이 너무 좁아 취업생 사이에서는 '헬조선'이라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는 요즘, 일부 권력자의 힘을 악용해 좋은 직장에 취업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A씨의 사연처럼 부정확한 방법으로 입사한 사원들 중 대다수가 중도 퇴직한다. 더 대우가 좋은 기업으로 전직을 하거나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개인 사업을 하는 등이다. 연줄 없이 실력으로 입사할 수 있었던 수십 명은 취업의 기회를 잃고 좌절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도 이력서를 들고 이곳저곳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공무원은 승진을 위해 학연이나 졸타기 등을 중요시하고 비정규직 기간제 공무원의 경우 철저히 배제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인맥이 없는 비정규직 기간제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은 하늘의 별따기다.

최근 정규직 전환에 성공한 C씨는 "비정규직 기간제 공무원으로 오랜기간 업무를 하면서 삼수 끝에 정규직 전환에 성공했지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평소 친했던 정규직 직원들은 채용 시점만 되면 '00라인이던데 잘할 수 있겠어?'라며 비아냥 거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기존 정규직들은 '자신만의 리그'를 만들어 배척하고 있다는게 C씨의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입니다"라고 언급한 것처럼 채용비리의 뿌리를 뽑아내고 기회와 공정, 정의라는 나무가 자라는 세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게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블라인드 테스트 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지원자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짧은 면접으로 우수인재를 선발하는 건 쉽지 않다"며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가 민간기업으로도 감사를 확대해 채용비리를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훈 기자 ysw@metroseoul.co.kr



모바일 직불서비스 시연 영상 중 일부.

/NH협업은행

## 은행 예금계좌서 바로 결제 '모바일 직불서비스' 추진

### 금융정보화추진협

내년 상반기 도입 목표  
기술표준·플랫폼 구축

내년 상반기 중 은행 계좌기반의 모바일 직불서비스가 도입된다. 주로 신용카드에 편중된 국내 지급결제 시장의 구조를 고비용에서 저비용으로 바꿔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결제 방식 다양화로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힌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표준을 마련하고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금융위)는 고객의 은행예금계좌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직불서비스 도입을 추진키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유관기관 등 28곳으로 구성된 금융권 협의체로, 의장은 한국은행 윤연식 부총재가 맡고 있다.

이번 서비스 추진은 전 세계적으로 지급서비스 채널이 모바일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 기반의 모바일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현

재 국내 지급서비스 시장은 신용카드 서비스의 선점으로 현금카드는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이용건수는 일평균 3억3000만건, 이용금액은 일평균 1조9000억원으로 국내 민간소비의 75.4%가 신용카드로 이뤄졌다. 반면 현금카드 이용실적은 1억6000만건, 이용금액 11억1000만원으로 신용카드 전체 규모의 0.05%에 불과했다.

같은 직불형태로 분리되는 체크카드의 이용건수가 2억건, 이용금액이 4000억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현금카드는 사실상 이용하는 소비자가 거의 없는 셈이다. 실제로 직불형태의 이용실적 대부분(99%)은 체크카드다.

이렇다보니 지급서비스시장의 고비용 구조는 고착화됐다. 신용카드의 경우 인프라 유지·관리 비용 외에 고객 신용평가, 연체 시 대손처리, 카드매출전표 관리 등의 업무로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간 네트워크 업무를 VAN사가 대행하는 시스템이어서 수수료 등의 부담이 가맹점에 전가되는 문제점도 있다.

/김희주 기자 hj89@

## 자산 120억 미만 회사 '외부감사' 제외

### 금융위, 외부감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 경영부담 고려 자산 기준 조정

외부감사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회사의 자산 규모 기준이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한 외부감사법 시행령안 중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고려해 자산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 시행령에서 비상장회사는 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 100인 미만 등 4개 기준 중 3개를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한회사 기준도 차별화된다. 주식회사의 기준에 '사원 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한 5개 기준 중 3가지에 해당하면 소규모 회사로 인정된다.

대규모 회사 기준 또한 새롭게 신설했

### <소규모 회사 인정 기준>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
입법예고	100억 미만	70억 미만	100억 미만	100명 미만
대안	120억 미만		상동	

\*현행 0 기준에 따른 외감대상 주식회사 수:28,900개사 (2016년 말 기준)

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에 대한 소규모 회사로 인정하지 않고 외부감사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부합하는 회사가 약 2000여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규정 완화를 통해 전체 외감대상이 2016년 기준 현재보다 0.1%(300여곳)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금융위는 외부감사법·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내달 1일부터 9월 9일까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변경도 예고한다.

변경된 주요내용에 따르면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으로 등록하는 요건인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이 마련된다.

등록요건은 주 사무소 소속 등록 공인회계사 40명 이상, 주 사무소와 부 사무소를 포함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시행은 회계법인이 영업 중심 사업 관행에서 벗어나 감사품질 제도에 힘쓰게 하려는 취지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무제표 심사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회사 재무제표 오류가 있는지를 심사해 특이사항을 발견하면 회사 소명을 듣고 수정이 필요하면 신속한 수정공시를 권고하는 제도다. 다만,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인 경우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이면 강도 높은 감리를 한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 LH, 국내 최초 1140억 규모 소셜본드 발행

### 세계 최초 스위스프랑 발행 5년 만기, 해외 투자자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5년 만기 소셜본드를 발행했다. 스위스프랑으로 발행된 소셜본드로는 세계 최초다.

31일 LH에 따르면 이번에 발행한 소셜본드의 규모는 1억 스위스프랑으로 한화로는 약 1140억원 상당이다.

소셜본드는 사회적 가치 실현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해외채권이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사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발행할 수 있다.

LH는 국내 시중은행과 발행대금인 스위스프랑을 1% 후반 금리로 원화와 통화스왑해 동일 5년 만기 국고채(7월24일 기준 2.34%)보다도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했다.

김정일 LH 자금지원부장은 "소셜·그

린본드 발행 대부분이 미국달러나 유로화로 이루어지지만 최근 미국금리 상승으로 스위스프랑이 금리 측면에서 더 매력 있어 일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스위스프랑으로 발행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LH는 이번 소셜본드로 조달한 자금 전액을 임대주택건설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올해 4분기에 1억6000만 달러 규모의 소셜본드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예대마진’ 안주하다 핀테크 失機... ‘금융의 삼성’ 멀었다

우물안 **국내銀** ✕ **글로벌** **외국銀** ① 수익성 분석

금융지주 수익 50~80% 은행서 벌며 “전통금융 성장 한계” 시중은행 NIM 상승세... 업무 글로벌화·투자도 강화해야

“예 삼성전자 같은 금융사는 없는가(?)”

우리 금융산업의 낙후한 현실을 꼬집는 질문이다. 이자 장사로 버티며 ‘우물안 개구리’로 안주한 결과다. 금융지주 수익의 50~80%는 은행이 차지할 정도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전통적인 금융산업은 성장한계에 부딪혔고, 빠르게 변하는 핀테크 산업을 따라잡지 못하는 은행은 현재 지위가 강등되거나 자금중개 기능조차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금융시장 성숙도는 74위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노사간 협력(130위), 대출용 이성(90위), 은행건전성(91위) 등에서 나쁜 평가를 받은 탓이다. 시장 규모는 13위로 평가됐다.

수익성만 놓고 볼 때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수익성은 글로벌 은행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았다. 7월 3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 대표은행의 2016년과 2017년 순이익 증가율은 각각 24.5%, 30.2%였다. 이는 미국(-1.3%·-26.9%), 일본(-1.4%·2.9%), 영국(-34.5%·66.9%), 유럽(52.1%·-0.4%), 중국(-0.1%·4.0%)

등과 차별화된다. 국내 기준금리 인상 수혜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상승,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성장, 이에 따른 높은 이자이익증가율 등에 기인한다. 대손비용률도 글로벌 은행 대비 낮다.

### ◆ 순이자마진 글로벌 은행과 차이

순이자마진(NIM)은 글로벌 은행과 차이를 보인다. 블룸버그와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은행 NIM은 1.7~2.2%(이하 2017년 GAAP 연결기준 연간 NIM 적용)가량이다. 글로벌 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다.

미국 주요은행인 제이피모간체이스(J.P. Morgan Chase·JPM US),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BAC US), 웰스파고(Wells Fargo·WFC US), 시티그룹(CITI Group·C US)의 NIM은 2.3~2.9% 가량이다.

일본 주요은행인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8306 JP), 스미토모미쓰이파이낸셜그룹(Sumitomo Mitsui Financial Group·8316JP), 미즈호파이낸셜그룹(Mizuho Financial Group·8411 JP)의 NIM은 0.6~1.1%이다.

영국 주요은행인 HSBC(HSBC Holdings PLC·HSBALN), 로이즈뱅크(LLOYDS Banking Group·LLOYLN), 바클레이즈(BARCLAYS PLC·BARCLN)의 NIM은 1.2~1.6%, 프랑스 주요은행인 BNP파리바(BNP Paribas SA·BNP FP) 및 소시에테제네랄(Societe Generale SA·GLE FP) NIM은 각각 1.6% 및 1.0%이다.

독일 주요은행인 도이치뱅크(Deutsche Bank AG·DBK GR) 및 코메르츠뱅크(Commerzbank Aktiengesellschaft·CBK GR) NIM은 각각 1.5% 및 1.1%, 기타 스페인 주요은행인 방코산탄데르(Banco Santander SA·SAN SM) NIM은 3.1%, 스위스 주요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redit Suisse Group AG·CSGN SW) NIM은 1.2% 수준이다.

중국 주요은행인 공상은행(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Ltd), 건설은행(China Construction Bank Corporation), 중국은행(Bank of China Ltd), 교통은행(Bank of Communications CO. Ltd) NIM은 1.7~2.5%다.

### ◆ 국내 은행 기준금리 인상 수혜로 NIM 상승 차별화

한국 시중은행의 수익성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준금리 측면에서 시중은행의 NIM이 상승 추세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2018년 NIM 상승 반영과 2018년에 1~2차례 금리인상이 예상되

고 있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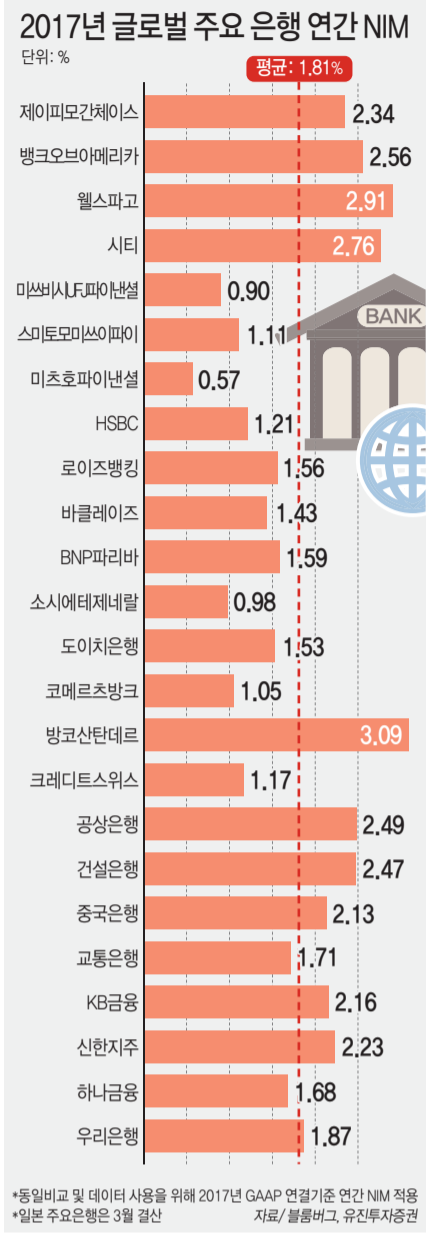
NIM에 영향을 미치는 예대율(예금/대출)에서도 글로벌 은행 수준을 웃돈다. 2017년 글로벌 주요 은행의 평균 예대율은 84.9%로 하락 추세다. 국가별 주요 대표은행 기준으로는 미국 70.0%, 일본 59.3%, 유럽 92.7%로 평균 예대율 하락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중국 78.1% 및 한국 107.2%로 소폭 상승했다.

대출채권 비중도 수익성에 호재다. 지난해 말 기준 평균 대출채권 비중(총대출채권/자산총액)은 68.2%이다. 같은 시기 글로벌 주요 대표은행은 47.9%였다. 국가별로는 미국 41.7%, 일본 37.9%, 유럽 42.0%, 중국 54.5% 등이었다. 이는 국내 은행이 글로벌 주요 은행 대비 해외 및 은행 외부의 사업다각화가 부족하다는 의미지만 금리상승의 수혜가 가장 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대출은 금리가 높은 운용자산 중 하나로 조달금리 리프라이징(Repricing·가격 재산정) 효과로 금리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유진투자증권 김민 연구원은 “해외 주요 대표은행의 업무영역이 글로벌화 됐다는 점과 대출 중심의 상업은행 보다는 투자은행 성격도 강하다. 국내 주요은행과 달리 기준금리로 인한 NIM 영향과 이에 따른 순이익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마포구가 마포매경타운과 연계한 ‘일자리 매칭데이’가 열린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 어울림마당에서 구직자들이 현장에 설치된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시스

## 하반기 5개 은행 2210명 ‘채용 큰장’

필기전형 NCS 직업능력평가 도입

10여년 만의 필기고시 부활과 역대급 채용이 예고된 하반기 시중은행들의 채용이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본격 시작됐다. 구직자들에게 이들 은행 채용 트렌드에도 관심이 쏠린다.

31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

H농협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의 하반기 채용인원은 2210명에 달한다. 상반기와 합하면 올해 이들 5개 은행 채용 규모는 3100명으로 역대급으로 많다. 채용잡음을 줄이고 채용 공정성을 준수하기 위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채용규모를 상향 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30일 ‘2018 개인금융 서비스직군 신입행원’ 모집부문에 대해

서류 접수를 마감하고 내달 오는 8월 11일 필기전형을 앞두고 있다.

우리은행은 올 상반기 채용 시 필기전형에서 경제·금융·일반상식과 적성검사를 실시했다. 하반기 필기전형에서는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첫 도입해 기존 적성검사를 대체한다. 일반상식과 경제 지식 문제는 유지된다.

/한용수 기자 hys@

# 제22회 무안 연꽃축제

사랑, 소망 그리고 인권

2018. 8.9(목) ~ 8.12(일) / 4일간

전남 무안군 일로읍 회산백련지 일원

**무안군**

### 주요행사

- i-쿨존(얼음나라)
- 연지방 소망등 달기
- 백련 가래떡 나눔잔치
- 연빛달빛 사랑의 퍼레이드
- 연꽃방죽 AR 보물찾기
- 발이퐁퐁 연꽃얼음물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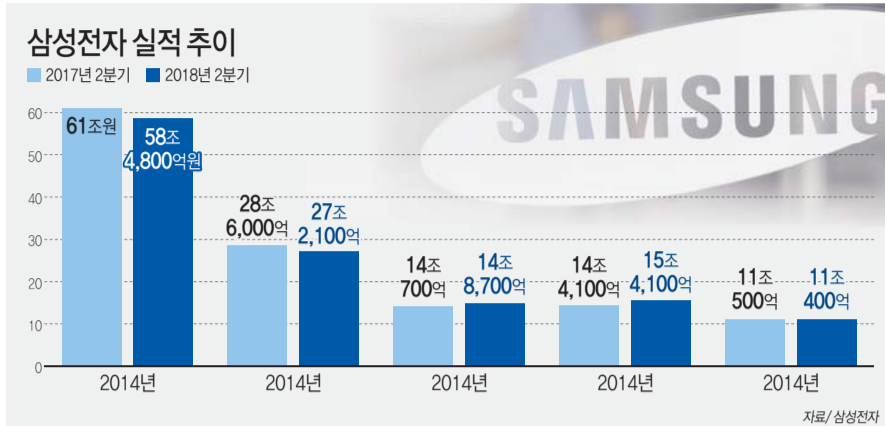
# 반도체 나홀로 건인... 갤럭시9 '하반기 실적 다크호스'



전년보다 매출 감소에도 영업익 개선  
하반기 메모리 시장 수요 확대 예상  
신규 수요 대응·5G 기술 선점 박차

삼성전자의 올해 2·4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매출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을 개선시킨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마케팅비용에 해당하는 판관비가 줄어들어 이를 영업이익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3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2분기 반도체 부문은 매출 21조9900억원, 영업이익 11조6100억원을 기록했다. 계절적으로 비수기이고 스마트폰 시장이 약세를 보임에도 데이터센터용 서버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했다. 저장장치인 낸드플래시는 스마트폰 고용량화 추세와 클라우드 인프라 확대에 서버용 SSD 수요가 지속



적으로 증가했다. 메모리 반도체 부문 전세원 전무는 '게임 수요 감소에 따라 그래픽 카드 메모리 수요가 견조했다. 하이엔드PC의 고용량 메모리 수요도 견조했다'고 분석하면서 '하반기 메모리 시장은 서버 수요의 지속 증가와 신제품 스마트폰 출시와 메모리 탑재량 증가에 따라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시스템 LSI 사업도 계절적 비수기에 따라 모바일 AP 등 부품의 수요 감소로 전분기 대비 실적이 하락했다. 다만 하반기

기 시스템 LSI 사업과 파운드리 사업은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OLED 디스플레이와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고해상도 이미징 센서, 듀얼카메라 채용 확대에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다.

디스플레이 패널 부문에서는 매출 5조 6700원, 영업이익 1400억원을 나타냈다. OLED 부문은 플렉시블 제품 수요 약세가 지속돼 전분기 대비 실적이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에 플렉시블 제품 수요 회복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차별화된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 강

화를 통해 모바일용 OLED 점유율을 확대하고 폴더블 디스플레이 등 신규 제품군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가전(CE) 부문은 매출 10조 4000억원, 영업이익 5100억원을 기록했다. TV 사업은 신제품 QLED TV 판매 호조와 UHD·초대형 TV 등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생활가전 사업은 패밀리허브 냉장고, 큐브 공기청정기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같은 계절제품 수요 둔화로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소폭 감소했다.

하반기 전략에 대해 영상 디스플레이 부문 박경철 상무는 "8K·마이크로 LED TV 등 혁신 제품을 출시하고 QLED·75형 이상 초대형 TV의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겠다"면서 "AI기반 QLED 8K 제품 출시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현실감을 제공하고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기기(IM)부문은 매출 24조원, 영업이익 2조6700억원을 기록했다. 무

선 사업에서는 갤럭시 S9를 포함한 플래그십 모델 판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마케팅 활동 강화로 인한 비용 증가로 인해 실적이 감소했다. 네트워크사업의 경우 2분기 해외 주요 거래선의 LTE 증설 투자 확대에 실적이 개선됐다. 하반기에는 주요 거래선을 대상으로 5G 상용 솔루션 공급을 추진하고 차세대 네트워크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모바일 부문 이경태 상무는 하반기 전략에 대해 "최고 성능을 갖춘 갤럭시 노트 신모델을 전작 대비 빠른 시점(8월9일 뉴욕 언패킹 행사)에 발표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하겠다"며 "중저가 제품에도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동시에 가격 경쟁력도 강화해 판매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장기전략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전장·AI용 신규 수요에 대응하고, 폴더블 스마트폰 같은 혁신과 5G 기술 선점을 통해 성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co.kr

## SKT, 클라우드 OVP 개발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 기술표준화·글로벌사업 추진

인코더 등 장비 없어도 서비스 제공

SK텔레콤은 클라우드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이하 클라우드 OVP, Cloud Online Video Platform) 개발을 완료하고 기술 표준화와 글로벌 미디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SK텔레콤이 개발한 클라우드 OVP는 미디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코더(영상압축)·트랜스코더(콘텐츠 형태 변환)·스트리머(스트리밍) 등 여러 장비를 별도 구축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특히 어떤 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손쉽게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SK텔레콤 클라우드 OVP의 장점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기존에는 각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의 API에 맞춰 콘텐츠 규격을 조정했다.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간 연동 조치도 필요했다. 하지만 SK텔레콤 클라우드 OVP 기술을 활용할 경우 미디어 온라인동영

상서비스(OTT)·방송사·이러닝(e-learning) 사업자 등은 추가적인 연동 작업 없이 자사 콘텐츠를 다양한 클라우드에서 제공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올해 안에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OTT 사업자를 대상으로 첫 사업화에 나설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지난 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ITU-T SG11(Study Group 11) 미팅에서 클라우드 OVP 표준 초안을 제안해 승인 받았다. SK텔레콤은 현재 SG11 Q7 의장을 맡고 있는 이종민 미디어기술원장을 중심으로 2019년 말까지 클라우드 OVP ITU-T 정식 표준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SK텔레콤 이종민 미디어기술원장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면 시장이 활성화되고 사업자들의 해외 진출도 쉬워질 것"이라며, "클라우드 OVP 글로벌 표준화와 생태계 확대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EC지원센터, 전국 우수 농수산물 판매

(우체국 전자상거래)

지방자치단체·쇼핑몰과 협업

우체국 전자상거래지원센터가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 쇼핑몰과 협업해 전국 각지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발굴·판매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이하 'EC지원센터')가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 쇼핑몰과 협업해 지역 특산물 및 공산품을 발굴하고, 상품 상세정보 무료 제작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EC지원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약 700여개 업체, 2800여개 상품의 상세페이지 제작을 무료로 지원해 왔다.

이번에 확대 오픈한 EC지원센터는 전국 우체국과 지자체가 협업해 우체국소

핑 신규 상품을 발굴하고 상품 상세정보 디자인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예산을 확보해 외부 쇼핑몰(옥션, 지마켓, 카카오톡 등)에 상품 등록과 판매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상품 입점·판매 등 농어민,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역상품 판로 확대 마케팅 등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상 서비스도 EC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언제든지 무료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배재대학교, 목원대학교 등 지방대학교와 산학협력 사업을 통해 전자상거래 우수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강성주 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협업을 확대하여 우체국의 전자상거래 지원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 기아車, 스마트폰 등 5개 테마상품 60% 할인

구매고객 대상 '더 드림 페스티벌'  
8월 한달간 할인 혜택 누릴 수 있어

기아자동차는 전 차종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가전제품(삼성전자) ▲스마트폰(갤럭시S9, LG-G7 ThinkQ, 아이폰X 등) ▲블랙박스(아이나비, 폰터스, 만도) ▲캠핑용품(코베아) ▲차량용품(모비스, 레드멤버스몰) 등 5가

지 테마의 상품들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는 '더-드림(The-Dream)페스티벌'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더-드림 페스티벌'은 8월 한달 간 진행되며, 2015년 1월 1일 이후 기아차를 구매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기아차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브랜드의 URL을 선

택해 접속한 후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자동차 구매와 함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재미를 드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더-드림 페스티벌과 같은 이색적인 판촉 행사를 통해 앞으로도 고객분들께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민 기자 ysw@

## KT, 아이언맨 디자인 적용 '아이언 에그' 출시

유선 인터넷 연결 맨 무선공유기로  
대용량 배터리로 20시간 사용 가능

KT가 마블 인기 캐릭터 아이언맨 디자인을 적용한 신규 LTE 에그(egg)인 아이언 에그를 1일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품은 아이언맨의 상징인 아크 원자모와 마스크 등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했다. 전면과 측면 LED의 다양한 색상 변화로 단말 상태 및 LTE 신호 세기를 확인할 수 있다.

충전기로 제공되는 크래들은 WiFi, LAN 포트 등의 기능을 탑재했다. 크래들에 있는 포트에 유선 인터넷을 연결하면 LTE 데이터 소진 없이 무선공유기로 사용할 수 있다. 와이파이를 지원하지 않는 데스크톱 PC 등에 연결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40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해 20시간까지 연속 사용이 가능하며 센터를 이용해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KT 모델들이 아이언맨 콘셉트의 신규 LTE 에그 '아이언 에그'를 소개하고 있다. /KT

로도 활용 가능하다.

1일 기준 출고가는 15만4000원이다. KT LTE egg+ 11(11GB, 월 1만6500원)이나 LTE egg+ 22(22GB, 월 2만4200원) 요금제로 가입 가능하다.

KT는 지난 6월 와이브로(WiBro)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요금제와 같은 가격에 같은 양의 LTE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용자 보호용 LTE egg+ 요금제를 출시한 바 있다. 기존 와이브로 가입 고객은 경제적

인 부담 없이 아이언 에그 등 LTE 에그 상품으로 전환가입 할 수 있다.

KT는 30일(월)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 계획을 발표하며, 기존 가입자들이 불편 없이 데이터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LTE 전환 지원 프로그램 및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와이브로 이용 고객이 해지를 원하거나 'LTE egg+' 요금제로 전환할 경우 기존 위약금과 단말 잔여 할부금이 모두 면제된다. 또한 에그 단말을 무료로 교체해 준다. 단말 무료 프로그램은 9월 말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 전까지 적용된다. 아이언 에그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일부 추가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

KT 융합담당담당 구영근 상무는 "고객들이 아이언 에그를 통해 특색 있는 디자인과 편의성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KT는 앞으로도 새로운 디자인, 다양한 기능의 디바이스를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직접 그린 물고기가 TV 수족관 속으로’

# 아이의 상상으로 만드는 TV... LGU+의 AR·시로 완성

〈증강현실〉

〈인공지능〉

## ‘U+tv 아이들나라 2.0’ 출시

8가지 새로운 AR 콘텐츠 담아  
구글-유튜브-웅진씽크빅 협업  
육아 고민 돕는 ‘부모교실’ 제공  
넷플릭스와 제휴 검토중

‘아이가 그린 그림이 아가데지 삼형제 그림책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 직접 색칠한 물고기가 텔레비전 수족관 속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LG유플러스가 선보인 증강현실(AR) 인터넷TV(IPTV) 키즈 콘텐츠다. LG유플러스가 야구, 골프 등 모바일 콘텐츠에 이어 하반기 TV 콘텐츠 육성에 드라이브를 건다. 지난해 구글과의 협업으로 호응을 얻은 ‘아이들나라’ 서비스 2.0 버전이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LG유플러스는 31일 서울 용산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U+tv 아이들나라 2.0’을 선보이며 키즈 콘텐츠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U+tv 아이들나라’는 IPTV를 통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유아서비스 플랫폼이다. 영재들의 학부모, 육아 전문가, 아동 심리 상담사 등의 추천 콘텐츠와 인기 캐릭터 시리즈, 유튜브 채널 등을 제



LG유플러스 홈미디어 상품담당 이건영 담당이 31일 오전 서울 용산 본사에서 ‘U+tv 아이들나라 2.0’ 출시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LG유플러스가 31일 오전 서울 용산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U+tv 아이들나라 2.0’을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공한다. 송구영 LG유플러스 홈·미디어부문장 전무는 “4차 산업혁명에 걸맞게 인공지능(AI) 등 융합기술을 포함한 콘텐츠를 다수 확보해 제작했다”며 “출시 1년 만에 이용자 100만 명을 돌파한 ‘아이들나라’ 서비스가 새로운 버전으로 또 한번 ‘퀀텀점프(대약진)’를 노린다”고 강조했다. 아이들나라 2.0은 ‘재미있게 놀면서 생각을 키우는 TV’를 목표로 내걸었다. 교육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바보상자’라는 오명이 붙은 TV를 양방향 미디어 교육 매체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젊은 부모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교육법’에 대한 요구와 정보교류가 늘고 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대디들도 TV가 올바른 교육법에 대한 순기능을 제공하면 안심하고 편하게 자녀를 TV 앞에 앉혀놓을 수 있어 반응도 좋다. 실제 아이들나라 서비스는 출시 1년 만에 이용자 100만명, 연간 시청 7억건을 돌파했으며 이 중 30대 여성 가입자는 분기당 10%씩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아이들나라 2.0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은 증강현실(AR) 놀이 플랫폼이다. ‘생

생 체험학습’은 창의교실·융합교실 등의 세부 기능을 통해 8가지의 신규 AR 콘텐츠를 제공한다. 아이가 그린 그림이 TV 동화 속으로 들어가는 ‘내가 만든 그림책’, 직접 색칠한 물고기가 TV 수족관 속으로 나타나는 ‘물고기 그리기’가 대표적이다. ‘도레미 물감놀이’, ‘비눗방울 톡톡’ 등의 모션인식 서비스도 제공된다. AR 체험 후에는 관련된 학습 영역의 주문형비디오(VOD)를 볼 수 있도록 내셔널지오그래픽, BBC키즈 다크 등 약 500편의 콘텐츠가 편성돼 있다. 40만이 넘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유

초등 전문 교육서비스인 ‘웅진씽크빅’과도 손잡아 ‘보고 듣는 도서’ 서비스를 내놨다. 누리과정 반영된 인기 도서와 독서 흥미유발 영상콘텐츠인 ‘북클럽TV’ 등 총 1000여개의 웅진북클럽 콘텐츠가 제공된다. 웅진북클럽이 콘텐츠를 타사와 제휴 및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부모들이 육아를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엄마·아빠 전용 콘텐츠도 편성했다. 이번에 신설된 ‘부모교실’은 자체 제작 콘텐츠 440여편을 모두 무료로 제공한다. 가장 대표적인 콘텐츠는 ‘임신·출산·육아대백과’ 서비스다. 11년 연속 베스트셀러인 육아 도서를 저자인 소아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가 직접 출연해 설명하는 영상으로 제작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LG유플러스는 글로벌 미디어 공룡 ‘넷플릭스’와의 제휴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송구영 전무는 “넷플릭스와의 제휴를 검토하는 중 우려의 시선이 많아 사업적 리스크와 규제 환경 등 재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내 콘텐츠 시장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대로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국내 화학기업 최초 ‘글로벌 톱10’ 진입



지난해 12위 보다 두 계단 상승  
바이오·배터리사업 성장세 기인



LG화학 여수 NCC공장 전경. /LG화학

LG화학이 글로벌 화학기업 순위에서 국내 기업 최초로 10위를 기록, 글로벌 TOP10에 진입했다.

31일 미국화학학회 ACS(American Chemical Society)가 발행하는 전문잡지 C&EN(Chemical & Engineering News)이 최근 매출과 영업이익 규모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발표한 ‘2017 Global TOP 50’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한 10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기업 중 중국의 시노펙(3위)과 대만의 포모사 플라스틱(6위), 일본의 미쓰비시 케미칼(9위)에 이어 4위에 해당하는 순위다.

C&EN은 LG화학에 대해 “배터리 사업 등이 성장세로 R&D 인력을 2020년까지 800명을 늘린 6300명 수준으로 대규모로 확대 중”이라며 “재료·바이오 등 신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 영역에서 세계 석학을 대상으로 ‘이노베이션 콘테스트’를 개최, \$15만달러 가량의 상금을 지급하는 등 새로운 영역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화학유코발트와 조인트 벤처 설립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 수급을 확보하며 투자도 활발히 진

행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Global Top 50’에는 LG화학을 비롯해 롯데케미칼(22위), SK이노베이션(38위), 한화케미칼(49위) 등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도 다수 포진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하며 22위를 기록했다. C&EN은 롯데케미칼에 대해 웨스트레이크케미칼과 30억 달러의 에틸렌 규모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SK이노베이션은 6단계 상승했고 한화케미칼은 49위를 기록하며 6단계 하락했다. 한편 글로벌 석유화학업체 순위 1위는 독일 바스프가 차지했으며 2에서 5위는 각각 다우유폰(미국), 시노펙(중국), 사빅(사우디아라비아), 이네오스(영국)이 차지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필리핀 국립박물관을 방문한 어린이들이 LG 올레드TV 화면 속 보호 바닷속 풍경을 보고 있다. /뉴스1

## 마닐라 국립박물관에 올레드 TV 기증

### LG전자 필리핀 진출 30주년 기념

LG전자가 올해 필리핀 진출 30주년을 기념해 수도 마닐라에 있는 국립박물관에서 LG 시그니처 올레드TV W 등 신제품 발표회를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필리핀 국립박물관에서 민간 기업이 제품 발표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는 올레드TV 기증식도 함께 진행됐다.

LG전자는 이와 함께 필리핀 보호섬 인근의 바닷속 영상을 별도로 제작해 박물관 측에 제공했다. 해당 영상은 해양 생태 전문가이자 사진작가인 노엘 게비라가 직접 촬영했다. 지난 1988년 말 필리핀 시장에 진출한 LG전자는 이후 고교생 TV 퀴즈쇼 후원, 마라위 지역의 교육용 TV 및 의료용품 지원, 수해복구 지원 등 현지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 러 월드컵 효과 ‘톡톡’... 영업익 43% 켉충

(61억2600만원)

### 아프리카TV 2분기 실적

매출 289억, 전년 비 28.4% 증가  
볼링 등 생활스포츠 활성화 기인



만원, 61억2600만원을 기록했다고 31일 공시했다. 2018년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4%와 43% 증가한 금액이다. 전 분기 대비로는 각각 3.6%, 1.3% 상승했다. 2018년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작년 상반기보다 각각 29.2%, 35.3% 상승

한 569억원과 122억원을 달성했다. 아프리카TV는 2분기 성과로 러시아 월드컵 독점 인터넷 중계와 낚시, 당구, 볼링 등 스포츠 카테고리 트래픽이 상승하고, 다양한 외부 기관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콘텐츠 다변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프리카TV 정찬용 부사장은 “기존 BJ 중심의 커뮤니티 생태계에 콘텐츠 가치를 넣어 뉴미디어로서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라이브 스트리밍과 동시에 VOD 서비스를 강화하고 검색과 데이터 분석을 고도화해 플랫폼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서운 기자 yuni2514@

## 딤채 신화 대우위니아, 가정용 냉동고 출시

대우위니아는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중형 냉동고를 처음으로 출시하고 관련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2018 위니아 냉동고’ (모델명 WFZU230NAS·사진)는 가정에서 사용 가능한 227L급 중형 냉동고다. 가로 595mm, 세로 1722mm, 깊이 632mm로 중형 스탠드 김치냉장고 크기다. 선반식 2개와 서랍식 2개 등 총 7개의 수납공간으로 구성됐고, 열음을 열고 저장하는 트윈 아이스 메이커도 갖췄다. 위니아 냉동고는 대우위니아 전문점인



‘대우전자-위니아 스테이’ 전국 지점과 하이마트, 백화점 등에서 구매 가능하며 판매가는 70만9000원이다. /구서운 기자



# 악탈적 금융 몰린 저축銀 “은행과 단순비교 억울” 반발

금감원, 시중銀-저축銀 NIM 비교 차주 신용등급 상환능력 고려 안해 저축은행 “비교대상 아니다” 불만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30일 고금리 대출 저축은행의 명단을 공개해 저축은행 업계가 불만을 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발표가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저축은행 입장에서 ‘고금리 대출 저축은행 줄 세우기’ 자체가 금리 인하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1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의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금리 운용 실태’ 발표 자체가 저축은행이 곧 악탈적 금융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반발했다. 운용실태를 통해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규모를 발표해 ‘저축은행은 곧 고금리 대출을 진행하는 금융기관’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현황을 내놓자 업계에 불만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시중 은행과 달리 저축은행은 취약차주가 많아 고금리 대출이 많을 뿐이다”라며 “저축은행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고금리를 부과하는 악탈적금융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비중을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비교·분석해 가계신용대출에서 고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6.1%로 지난해 대비 소폭(4.5%포인트)감소했지만 잔액은 6.8조원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저축은행들은 증거자료가 대출금리를 인하하기 전 시점부터 조사돼 고금리 대출 규모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고금리로 진행된 대출의 경우 대출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규모가 줄지 않을 수 있다”며 “취약차주 경우 금리를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취약차주의 연체와 부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규모를 낮추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금리를 과도하게 받고있다는 증거로 국내은행과 저축은행 간 순이자마진(NIM)을 비교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NIM은 6.8%로 은행(1.7%)보다 5.1%포인트 높다”며 “저축은행이 차주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고금리를 부과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축은행업계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NIM비교는 거래고객의 특성

을 반영하지 않아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대출을 하러 오는 고객의 경우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돼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면서 “차주의 채무상환이 불가능할 경우를 감안해 차주의 신용위험까지 반영된 이자 마진이기에 때문에 은행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금융권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금리 등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시중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을 위해 금융당국의 현실적인 ‘포용적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실명 발표가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유리 기자 yul15@metroseoul.co.kr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KEB하나銀 출시기념 ‘전환손님’ 사은이벤트 다채

KEB하나은행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를 기념해 신규가입 및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손님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주거복지 향상 및 내 집 마련 자금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출시한 상품으로, 만 19세~29세의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청년이라면 1.5% 우대금리 및 비과세, 소득공제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를 기념해 KEB하나은행은 올해 말까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가입 및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하는 손님 모두에게 1만 하나머니를 지급하는 사은행사를 실시한다.

또한 오는 9월 말까지 신규가입 및 전환 손님 대상으로 40여명을 추첨해 ▲1등



3명에게 가족여행 상품권 ▲2등 10명에게 뉴아이패드 ▲3등 30명에게 백화점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한다.

이밖에 오는 9월에 예정된 축구국가대표 A매치 경기에 총 100명을 추첨해 각 2장의 입장권을 증정하는 초청 이벤트와 하나금융그룹 및 KEB하나은행 광고모델인 손흥민 선수와 래퍼 김하은의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7월과 8월 중 선착순 1만명에게 각각 제공하는 행사를 함께 진행한다. /김문호 기자 kmh@

## “클릭만 하면 고수익” 유사수신업체 주의보

금감원, 투자사기 등 피해 단속 파파라치 포상 등 신고·제보 당부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유사수신업체가 성행하면서 금융감독원이 피해 단속에 나섰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특별한 사업 모델이 없는데도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묻지마 투자를 권유하는 유사수신업체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최근 유사수신업체들은 단순 회원가입, 광고 클릭이나 댓글 작성, 신용카드 사용만으로도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투자를 속이고 있다. 또 미리 투자한 사람들은 이미 고수익을 달성했으며, 빨리 투자할수록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투자자의 조금한 심리를 악용해 투자를 유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A업체는 인터넷 재택 부업 회사로 가장해 단순히 회비를 내고 회원가입만 하면 단기간에 원금이 회복되고, 장기간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투자를 현혹했다. 3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3만원씩 지급해 10일이면 원금이 회복되고, 2년 동안 계속 동일한 수익을 지급해 최고 73배 이익을 얻게 된다는 식이었다.

또한 광고 서비스 회사로 가장해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단순히 광고만 보거나, 광고에 댓글만 달아도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회사도 있었다.

전 세계에 많은 지사를 두고 세계 최초

로 광고수입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회사라고 주장하면서 몇만원만 투자해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회원가입 후에는 게재된 광고만 봐도 매일 8%의 이익을 무한대로 얻는다고 속였다.

그러나 금감원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면 업체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체가 제출한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112)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파파라치 포상 제도를 통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 KB국민銀 9월말까지 신규가입 추첨 경품 ‘평평’ 용산 아파트 가격 0.26% ↑ ... 증가세 지속

KB국민은행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를 기념해 오는 9월 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가득(가득) 신규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영업점을 통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고객 119명과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는 고객 300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뱅킹, 전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이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다. 일정 자격이 충족되면 우대이율이 제공되고 향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비과세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가입자격은 만 19세에서 만 29세의 무주택 세대주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의 근로·사업·기타 신고소득이 있는 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만 30세 이상이더라도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을 차감해 만 29세 이하인 경우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일정 자격 충족 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향후 20대 청년들의 자산증대와 내 집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 1면 “강남보다 용·여”... 서 계속

◆ ‘강남 비켜’...매물 풀기, 가격 ↑ 매물 풀기 현상에 집값은 더 뛰고 있다. D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하루 만에 호가를 5000만원 더 올리라고 하더라”며 “일정 가격 이상 안 올리면 매매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아예 철회하는 집주인도 많다”고 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용산구의 아파트 가격이 0.26% 올랐다. 용산은 지난 9월 0.12%, 16일 0.20%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를 보면 이촌동 강촌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106.645㎡가 14억5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그러나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16억원대 이상이다.

왕궁아파트도 지난 5월 102.48㎡ 물건이 13억8000만원(2층)~14억3000만원(3층)에 거래됐으나 현재는 같은 타입 매물이 16억원대다. 서빙고동 신동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2월만 해도 95.66㎡가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유리벽면에 붙여 있는 매물정보.

13억3000만원(3층)에 거래됐는데 이달 같은 층수가 15억원에 팔렸다.

래미안첼리투스 아파트는 지난달 124.02㎡ 타입이 27억6000만원(18층)에 거래됐다. 현재는 29억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최대 35억원짜리(층수·평형 상) 물건도 나왔다.

D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박 시장 발인 후 매매물건이 줄줄이 보류되고 있다”며 “집주인들은 향후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글·사진=채신희 기자 csh9101@

## 우리은행 외화 후순위채권 3억불 발행 성공

우리은행은 외화 후순위채권(코코본드) 3억달러 발행에 성공했다고 31일 밝혔다.

채권의 만기는 10년이며 금리는 5.125% 고정이다. 우리은행은 고정금리를 수취하고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이자율스왑을 통해 채권금리를 ‘3개월 리보(LIBOR)+2.06%’(현재 4.40%)로 전환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외화 후순위채권 발행과 지난 7월 원화 신종자본증권 4000억원 발행을 통해 BIS비율을 높이며 지주사 전환에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최근 국내 금융기관의 자본증권 발행이 어려웠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행은 성공적이었던 시장의 평가다.

최근 미국 금리인상 기조로 장기 고정금리 채권에 대한 글로벌 투자수요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우리은행은 장기물 투자에 우호적인 미국과 대만 투자자를 공략했다. /유재희 기자





## 함께 더 높이, 더 멀리 KOREA BEST!

평화를 기원하는 열망, 그 한 마음이 한 팀이 되어  
코트를 가르고 수면을 질주합니다  
아시안의 축제를 넘어 힘찬 평화의 도약-  
남북단일팀의 선전을 KB가 함께 기원합니다

KB금융그룹은 대한카누연맹, 대한민국농구협회를 후원합니다

 KB 금융그룹



**증권 다이제스트**

**ELS 및 DLS 8종 공모**  
- 8/3(금)까지 모집

**KB증권**



**KB증권**

**ELS 6종·DLS 2종 등 8종**

KB증권은 오는 3일까지 3개 기초자산(Nikkei225·HSCEI·S&P500)으로 최고 연 6.0%(세전)의 수익을 제공하는 KB 에이블(able) ELS 619호(3년만기·6개월 단위 조기상환)를 포함한 원금비보장형 추가연계증권(ELS) 6종과 파생결합증권(DLS) 2종 등 총 8종의 상품을 공모한다.

KB able ELS 617호(2인덱스 울트라 스텝다운형)는 홍콩항셩중국기업지수(HSCEI)와 유로스탁스50(Eurostoxx 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노 낙인(No Knock-In Barrier)구조로 3년 만기에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 기회와 최고 연 4.0%(세전)의 수익을 제공한다.

/김문호 기자

**한국투자증권**

리자드 상환 기회가 2번 더!  
TRUE 10674회  
멀티 리자드형 모집!



**한국투자증권**

**총 30억 멀티 리자드형 ELS**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2일까지 코스피 200(KOSPI200), 홍콩H(HSCEI), 유로스탁스50(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멀티 리자드형 TRUE ELS 10674회'를 총 30억원 한도로 모집한다.

3년 만기 6개월 단위 스텝다운 구조로 6개월마다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95%(6개월), 90%(12·18개월), 85%(24개월), 80%(30개월), 75%(36개월) 이상이면 연 6%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또한 추가 리자드 옵션을 통해 설정 후 6개월과 12개월 조기상환 평가일까지 모든 기초자산이 85%(리자드 배리어)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원금과 함께 연 6%를 지급하고 자동 조기상환된다.

/김문호 기자

**하나금융투자**

**엘리스텝다운+리자드형 동시 추구 DLS 5종 모집**

하나금융투자는 엘리스텝다운과 리자드 쿠폰을 동시에 추구하는 DLS 등 파생결합상품 총 5종을 3일까지 모집한다.

원유(WTI), 유럽지수(EuroSTOXX 50)를 기초자산으로 엘리스텝다운형과 리자드형을 결합시켜 연 6.42%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DLS 2788회'를 모집한다.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지는 기존 스텝다운형에서 3, 4, 5개월 시점에 조기상환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는 엘리스텝다운형이다.

/김문호 기자

# 외국인, 지배구조개선 기대株에 ‘러브콜’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공식화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 가치 제고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적극적인 주주행동에 나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진행 중인 상장사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추가 상승을 제한했던 디스카운트(할인) 요인이 해소되면서 기업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서다.

31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이달 들어 30일까지 외국인은 우리은행(1040억원), 엔씨소프트(921억원), SK텔레콤(491억원) 등 지주사 설립 등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종목을 집중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3341억원)와 삼성전기(1366억원)를 대거 순매수했다. 또 액면분할 계획을 발표한 NAVER(3249억원) 역시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다음으로 매수금액이 많았던 종목은 LG이노텍(1362억원)이다. LG그룹이 새로운 총수 체제를 확립할 때마다 ‘가업은 장남이 물려 받고, 승계가 시작되면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종목	순매수금액(백만)
SK하이닉스	334106
NAVER	324995
삼성전기	136671
LG이노텍	136245
KT&G	111561
우리은행	104081
엔씨소프트	92187
한국가스공사	69161
기아차	65893
현대건설	63352
한국금융지주	52653
SK텔레콤	49163
한국항공우주	47582
삼성물산	43510
현대모비스	40419

기간: 7월1일~30일

선대 형제들은 경영에서 물러난다’는 전통에 따라 LG이노텍이 LG그룹 계열에서 분리될 것이라 분석이 나오면서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구본준 부회장은 향후 LG이노텍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주식매수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현재는 구 부회장 소유의 LG 지분 7.72%(약 1조 원)를 활용해 LG이노텍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현재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지주사 설립은 포괄적 주식이전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이는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새로 만들어지는 지주회사로 온전히 이전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우리은행 주식을 갖고 있으면 향후 새로 설립되는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지주사 전환을 통해 증권과 자산운용, 부동산신탁 등 수익성이 높은 다양한 업종에 진출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주식의 가치는 높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엔씨소프트 역시 김택진 대표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지주사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김 대표가 11.98%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에 이름을 올린 상태지만 2대 주주인 국민연금(11.27%)이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최근 1년 간 최대주주가 5번이나 바뀌는 등 경영권 불안이 투자리스크로 꼽혀왔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김 대표가 경영권 강화를 위해 미국 알파벳(구글의 지주회사)처럼 지주사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

다. 또 지주사 설립을 통해 인수합병(M&A)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7일 실적관련 컨퍼런스콜에서 지배구조개편 계획을 밝힌 SK텔레콤에도 외국인의 순매수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2분기 실적은 다소 주춤했지만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성장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다양한 ICT(정보통신기술) 계열사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게 중간지주사를 포함한 다양한 지배구조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외 기아차(658억원), 현대모비스(404억원) 등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다. 삼성그룹의 지주사격인 삼성물산(435억원) 역시 외국인이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인한 상장사들의 지배구조 개선효과는 지주회사에서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으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게 되면서 지주회사 기업가치는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범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건설사, 반려동물 위한 특화설계 ‘눈길’

### 반려동물 입주자 전용 ‘펫존’ 등 조경·커뮤니티 시설도 맞춤형

‘호텔, 놀이터, 케어센터...’ 최근 건설사가 반려동물을 위한 특화설계부터 조경, 커뮤니티 시설까지 다양한 주거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 가구수 600만 시대, 펫팸족(pet+family), 펫미족(pet+me), 딩펫족(dink+pet) 등으로 불리는 이들은 반려동물을 위해 흔쾌히 지갑을 열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규모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아예 반려동물을 위한 차별화된 인테리어는 물론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기반의 전용 펫스테이션 서비스도 나올 정도다.

내년 1월 입주하는 ‘의왕 장안지구 파크 푸르지오’는 반려동물이 맘껏 야외에서 뛰어 놀 수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선보인 바 있다. ‘편한세상 송

도’도 반려동물 호텔을 커뮤니티 시설 내부에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도시형 생활주택 ‘리마크빌 영등포(2016년 10월 입주)’는 오피스텔 A동 3~4층 40실을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주자 전용 ‘펫존’을 만들었다.

이 처럼 반려동물 보유 가구를 흡수하거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와 다른 가구를 분리해 민원도 줄이이기도 한다.

현대건설은 오는 8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도시지원시설 S4-2,3블록의 ‘힐스테이트 삼송역 스퀘어’ 단지 내에 반려동물의 운동 및 사육이 가능한 펫케어센터를 조성한다. 이 단지는 ▲2블록 1381실 ▲3블록 1132실 등 2513실이다.

동광건설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분양 중인 오피스텔 ‘수원호매실 동광뷰엘’ 27~37㎡, 333실 옥상에 반려동물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한다.

신세계건설은 울산시 중구 학성동에 분양 중인 ‘빌리브 울산’ 아파트 51~84㎡ 405가구, 오피스텔 53~64㎡ 162실에 계열사인 이마트가 직접 운영하는 폴리스 펫샵의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이 11월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의 ‘일원대우 재건축(가칭)’ 단지에 현재 특허 출원 중인 H-클린현관을 첫 시범 적용한다. H-클린현관은 현관 및 복도 수납장, 세탁실(보조주방), 욕실을 통합해 새로운 현관 기능을 제시하는 상품으로 현관 입구에 콤팩트 세면대가 있어 반려동물 산책 이후 간단한 세척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의식주 및 생활 환경 등 관심이 커지면서 이를 반영한 상품들이 등장하는 추세”라며 “건설사도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부터 펫케어센터까지 수요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peace@

**한화건설**

**재건축 ‘노원 꿈에그린’ 분양**

한화건설은 8월에 서울 노원구 상계동 677번지 일대(상계8단지)에서 재건축하는 ‘노원 꿈에그린’을 분양한다.

노원 꿈에그린은 1062가구 가운데 조합원 829가구, 임대 141가구를 제외한 92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일반분양은 ▲59㎡ 17가구 ▲74㎡ 8가구 ▲84㎡ 61가구 ▲114㎡ 6가구다.

지하철 4·7호선 더블역세권으로 마들역, 노원역, 상계역을 도보로 1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차량이용 시 동부간선도로를 통해 중심지로의 이동이 쉽다. 단지에서 도보권(1km 이내) 내 15개의 초·중·고교가 위치하고 있다. 바로 앞에 위치한 상곡초등학교를 비롯해 온곡초·중, 청원초·중·고, 상계초, 노원고 등이 있다.

유해업소가 없는 주변 생활환경도 주목할 만하다. 생활시설로서 남측의 상계백병원, 노원역 인근 롯데백화점 및 노원문화의 거리, 상계중앙시장 등이 있다. /이규성 기자

## KRX국민행복재단 “장학생 지원 넘어 자부심까지...”

**Advertorial Corner**

한국거래소 국민행복재단의 인재육성 사업이 장기적인 장학금 지원에 더해 인성과 자부심을 높여주는 참여 프로그램으로 장학생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거래소(KRX)는 전문적인 사회공헌을 위해 지난 2011년 KRX국민행복재단을 설립했다. KRX는 재단을 통해 다문화가정 의료지원, 노후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등 다양한 나눔 사업을 펼쳐 오고 있다. 특히 재단은 설립이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655명의 학생에게 약 27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가



/한국거래소

정의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선발된 장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

생은 2년간, 중·고등학생은 고교 졸업까지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성장단계별 워크숍, 인성교육, 합

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은 자아발견과 진로 탐색, 비전 형성의 계기가 될 뿐 아니라 한국거래소 장학생이라는 소속감과 자부심을 높여주고 있어 교육효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소년원 학생, 미혼모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학업을 중단해 교육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학력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선발된 청소년에게는 합격할 때까지 온라인 강의와 교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의 검정고시 합격률은 85%로 평균인 71%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전국 10개소 소년원 전체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 “중전선언, 3자·4자 형식보다는 실제 이행 여부가 더 중요하다”

靑, “꼭 3자 여야한다 말한적 없어”

청와대가 남·북·미 3자가 참여하는 중전선언 외에도 중국을 포함한 4자 중전선언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3자 또는 4자 형식보다는 실제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덧붙였다.

청와대는 31일 판문점선언에 담긴 중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3자 중전선언이 될지 4자 중전선언이 될지는 가늠할 수 없지만, 4자 중전선언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논의에 따라서 (4자 중전선언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그동안 중전선언 주체로 남북미 3자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는 중국을 포함한 남북미중 4자 중전선언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저희가 꼭 3자여야 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중전선언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들끼리 선언하는 것이 자연스럽게기 때문에 중국이 중전선언에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며 “이렇게 말할 때도 ‘중국이 참여한다고 하면 못할 것도 없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자 혹은 4자 등) 형식적인 면보다는 이행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중국을 포함한 4자 중전선언을 선호하는 것이 맞나’라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일부 언론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중전선언을 두고 북미 간에 의견대립이 있었고, 청와대는 중전선언 성사에 대비해 미리 중전선언문을 만들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는 “(북미) 양 정상 사이에서 논의가 오간 것이라 정확히는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중전선언 문제는) 정상회담 시점에서 이미 북미 간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있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의견대립이 있었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청와대는) 6·12 북미정상회담 전에 중전선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며 청와대가 중전선언문을 미리 준비하는 등의 일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8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알 수가 없고 지금까지 얘기된 바도 없다. 남북 간 문제는 진행 상황에 따라 속도가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다”며 “양측에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후속협상이 교착상태라는 평가가 있는데, (남북 정상) 핫라인 통화나 한미정상 통화 등을 준비할 생각은 없나’라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외국인 1명만 있어도 vs 절반 넘어야... 면허취소 요건 충돌

# 1700명 직원 생계는 어찌라고...

진에어 1차 청문회

6년간 불법등기이사 재직에 소명 “아시아나는 면허취소 안 됐다”

6일 2차 청문회서 공방 이어질 듯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판가름할 1차 청문회가 열렸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진에어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3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1차 청문회에선 미국인인 조현민 씨가 6년간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재직할 경우에 대한 진에어 측의 소명이 이어졌다.

외국인 등기이사가 1명이라도 있으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공사업법과 외국인이 임원의 2분의1만 넘지 않으면 등록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항공안전법을 고수하는 진에어측의 입장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비공개 청문회를 마친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는 “법리적인 모순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다”며 “아시아나항공과의 협력사, 여행업계 등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미국 국적의 임원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사외이사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가운데)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청문회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로 재직했지만 면허취소를 받지 않았다는 게 진에어 측의 주장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세차례 청문회를 연 뒤,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청문회는 2시간이 넘은 오후 5시 10분께 종료됐다. 2차 청문회는 8월6일 열린다.

진에어 관계자에 따르면 면허 취소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고용’이라고 전했다. 세 차례의 청문회 이후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가 결정되면 진에어 임직원 1700명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에어는 지난 2017년말 기준으로 2만 4000여명의 주주가 있는 상장기업이다. 면허취소가 결정된다면 막대한 일반 주

주의 손실과 증권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면허 취소가 언급된 지난 5월 시점부터 현재까지 투자자치 하락에 따른 소액 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진에어는 하반기 신입사원 100명 채용을 진행 중이다. 청문회와는 별개로 채용일정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 직원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2차 청문회에 앞서 ‘진에어 직원 모임’은 1일 서울 광화문에서 국토부의 면허 취소 검토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정호 대표이사는 “앞으로 청문 절차가 남은 만큼 진에어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 ‘사상초유’ 前 위원장·부위원장 구속 공정위, 현직간부 연루될까 ‘노심초사’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파장에 촉각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허탈함과 침통함을 지울 수 없는 분위기다. 특히 현직 간부로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번 사건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어떤 파장을 미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위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퇴직간부의 불법 채취업을 도운 혐의(업무방해)로 30일 구속됐다.

공정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출신이 한꺼번에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전 위원장이 자신이 다니던 사찰에 10억원을 기부하도록 SK그룹 측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2003년 구속됐을 때는 부위원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1996년에는 이종화 당시 독점국장과 정재호 정책국장이 기업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줄줄이 구속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 때는 공정위가 장관급 부처로 승격된 직후였다.

공정위는 31일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검찰 수사를 받는 처지에서 할 말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스러운 표정은 숨기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정 전 위원장은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 상황이라 구속 가능성이 클 것으로 봤다.



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 전 부위원장

공정위는 정 전 위원장 구속으로 전 조직이 퇴직간부 불법 채취업을 위해 움직인 것으로 비칠까 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검찰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돌고 있고, 현직 직원들이 검찰에 소환됐다는 소식도 들린다. 조직 내 긴장감이 팽배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공정위는 다음 달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2년차 주요 과제로 38년간 만기가 쌓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꼽고, 특별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한 공정거래법 개편은 이미 지난달 검찰 압수수색으로 인해 다소 빛이 바랜 상황이다. 공정위는 다음 달 입법예고에 이어 국회 통과까지 가나간 여정에 이번 일이 결림돌로 작용할까봐 걱정한다. /박인용 기자 parki7854@

# “폭염은 특별재난... 전기료 배려 검토를”

이낙연 국무총리, 산업부에 지시 피해 산업 지원금 신속처리도 당부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이같이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번 폭염은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상시화·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폭염 대비도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전력수급은 휴가철이 본격화해 조금 나아졌지만 휴가가 끝나는 내 주부터는 전력수요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라며 “전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이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노약자나 바깥에서 일하는 농어민, 건설근로자 등을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나 지자체 점검에 앞서서 본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본인이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도 더위에 무리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폭염으로 피해를 겪는 농축산업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 대한 재해보험금, 농약대, 가축입식비,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폭염에 따른 일부 채소류 가격 급등과 농작물 병충해, 가축 질병에도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리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근로시간 단축 한 달이 돼 많은 월급생활자가 ‘저녁이 있는 삶’을 찾았다고 반겨주었지만 일부에서는 변칙이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도 과로 사회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화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은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연말까지의 계도 기간을 잘 활용해 ‘저녁이 있는 삶’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저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반기시는

분이 적지 않으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졌고 일부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기도 하신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열악한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의 저임금 질곡을 완화해 드리는 것이 옳다”면서 “그러나 다른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을 받으시게 해서는 안 되는 만큼 과도기적 고통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주문했다.

그는 “모든 변화에는 진통이 따르는데 진통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변화를 거부하면 더 큰 문제가 쌓이게 된다”며 “변화는 수용되되 진통은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서 모든 산업생산이 5월보다 감소한 것을 두고서도 “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고 서민의 고통도 크다”면서 “내외 여건과 서민 고통을 겸손하게 직시하고 난관을 국민과 함께 극복해 가야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대기업은 자금블랙홀... 올 회사채로 13조 끌어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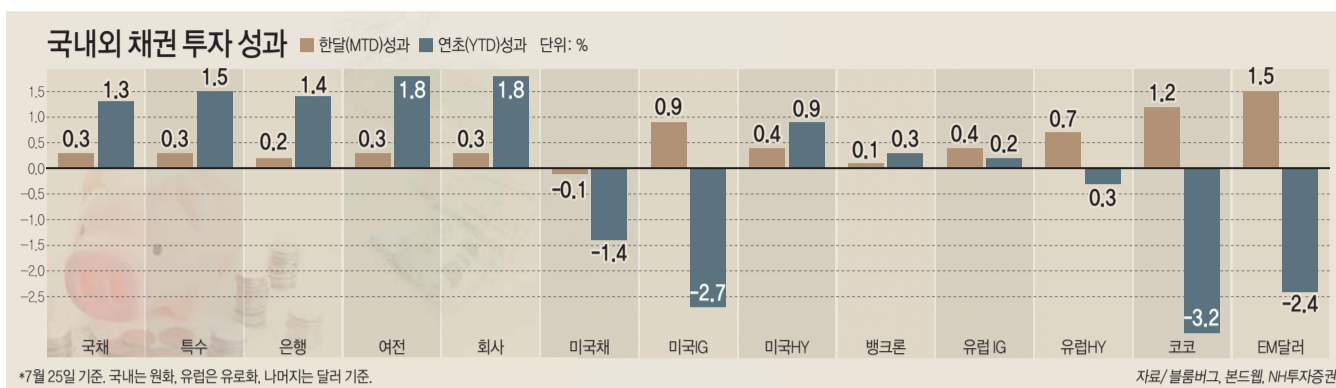
차환 1000억 이상 기업 45곳  
기업 투자 유인도 감소 '지속'  
비우량 크레딧물 수요 유입 전망

SK해운은 회사채 모집 규모를 기존 700억원에서 1260억원으로 늘렸다. 지난 26일부터 700억원 규모 회사채에 대한 수요예측을 실시한 결과 총 2490억원이 몰리며 흥행 몰이에 성공한 덕분이다.

대한항공은 15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조달하는 1500억원은 모두 만기도래하는 채권의 차환자금으로 사용된다. 대한항공은 오는 8월 31일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한다.

회사 측은 "부족한 자금은 당사 자체 보유자금과 수요예측 결과를 통해 증액되는 사채발행대금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계 순위 선두권 대기업 계열사들이 블랙홀 처럼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대부분 AA급 이상의 높은 신용등급에 그룹 후광까지 등에 업은 발행사들은 기관투자자의 풍부한 수요를 바탕으로 자금조



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해외 채권 투자 메리트가 줄어들자 기관들이 앞다퉀 회사채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도 공급을 부채질 한다.

7월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신용등급 'A-' 이상인 국내 기업들의 잠재 차환수요(2018년 만기도래분에서 기 발행액을 차감한 액수)는 13조2000억원이다. 기존 발행액과 만기 도래 차액이 5000억원 이상인 72개 기업의 수요다.

이 중 차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45곳으로 10조7000억원이다.

발행사별 미차환 규모는 삼성물산(9700억원), GS칼텍스(6500억원), 하나

금융지주(6280억원), 롯데케미칼(6200억원), SK(4100억원), 한화케미칼(3550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삼성물산, GS칼텍스,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은 올해 아직 발행이 없다.

등급별 미차환액을 보면 AAA등급 1조7000억원, AA등급 7조2000억원, A등급 4조3000억원이다. 상반기 AAA등급, AA등급, A등급 발행이 각각 6조2000억원, 16조1000억원, 4조5000억원 임을 감안할 때 규모는 크지 않다.

NH투자증권 한광열 연구원은 "상반기 증액발행 경향과 신규로 발행되는 회사채 등의 영향으로 발행액이 커보이는 점

을 감안하면 차환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채 발행은 3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A등급은 상반기 발행액에 가까운 잠재 차환수요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꾸준한 발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개별 기업이나 업종별 수요는 달라질 전망이다.

석유화학·정유 업종 등의 경우 업황 호조로 인한 현금보유량 증가 및 제한적 설비투자(CAPEX) 등으로 회사채 조달 필요성이 줄었다.

기업들의 투자 유인도 많지 않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국내총생산 통계에 따르면 투자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 -0.2%에서 올해 1분기 1.0%로 호전됐다가 다시 둔해진 것도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뒷걸음질한 영향이 컸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1분기 1.8%에서 2분기 -1.3%로 마이너스 전환했고, 설비투자 증가율도 1분기 3.4%에서 2분기 -6.6%로 급속하게 냉각됐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와 항공기·선박 등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 탓인데 이 같은 설비투자 증가율은 2년 3개월 만에 최저다.

크레딧 시장 한 관계자는 "개별 발행사별 이슈로 인해 수요예측이 현재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년 상반기로 발행 시점을 늦추거나 사모시장으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KB증권 전혜현 연구원은 "금리변동성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업들의 자금조달 시도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비우량 크레딧물의 경우 높은 캐리매력과 발행사 펀더멘털 개선 등이 반영되면서 수요가 견조하게 유입될 전망이다"고 분석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ool.co.kr



31일 오전 경기 성남 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설계 지원센터 출범식'에서 남기만 반도체협회 부회장(오른쪽)과 박청원 전자부품연구원 원장(왼쪽)이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 반도체 설계기업 창업 진입장벽 허문다

'시스템반도체설계지원센터' 출범  
창업·기술개발·마케팅 등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설계기업 창업, 기술개발, 마케팅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 지원을 위해 31일 경기 분당에 위치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를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인호 산업부 차관을 비롯해 시스템반도체 설계기업과 연구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산업 발전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운영기관인 반도체산업협회와 전자부품연구원은 반도체설계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담은 협력 양해각서(MOU)도 함께 체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시스템반도체 산업은 초고속, 저전력을 기술기초로 자동차, 바이오 등 다른 산업과의 융합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의 경우 시스템반도체 분야 창업 단절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이 침체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를 출범해 창업의 걸림돌이 되는 창업공간부터 기술, 마케팅, 인력까지 일

괄 지원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예비창업자는 전자부품연구원 시스템반도체플랫폼 연구센터에 입주해 전품종과 같이 기술개발, 창업지도도 받고, 시제품 제작 등을 통해 창업 가능성 등을 검증하고, 창업 초기기업을 위해 반도체협회 및 전품종 내 창업보육센터에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연구소, 대학 등이 보유한 기술이전 등을 지원하고 '반도체성장펀드'를 활용해 창업자금 및 투자 유치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기 매출이 발생하는 성장단계의 기업에는 포트폴리오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시장을 대상으로 로드쇼 및 해외 현지진출 등 마케팅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단순히 창업기업 수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업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화되고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며 "정부도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 자율차, 바이오, 스마트 가전 등 수요산업과 협업체 우리 반도체 설계기업이 차세대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 지방세 납부 증가... 카드사용액 200兆 돌파

(법인)

카드사용액 전년 비 10.4% 늘어  
수입차·편의점 이용 증가도 견인

올해 2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이 200조원을 넘어섰다. 개인카드 승인금액이 증가한데다 법인카드 이용금액이 5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가 7월 31일 내놓은 '2018년 2분기 카드승인실적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전체 카드 승인건수와 금액은 50억2000만건, 20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0%, 10.4% 늘었다.

특히 법인카드의 승인건수와 금액은 각각 3억1000만건 39조4000억원으로 최근 5분기 내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전년동기 대비 10.5%, 9.2% 증가한 수치다.

여신금융협회는 "작년 2분기 법인들의 국제 카드납부 유인이 약화됐던 것에 따른 지지효과와 최근 법인들의 지방세 납부금액 증가 등으로 실적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 GS SHOP 모바일쇼핑 취급액, TV쇼핑 첫 추월

2018년 2분기 GS홈쇼핑의 취급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0% 신장한 1조1144억원을 기록했다.

GS홈쇼핑은 2분기 매출액은 2685억원, 영업이익은 3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9%, 10.7% 증가했고 31일 밝혔다. 당기순이익은 382억원으로 173.6% 늘었다.

모바일 쇼핑이 5037억원으로 33.3% 신장하며 전체 취급액 성장을 이끌었다. 특히 모바일 쇼핑은 45.2%로 비중을 확대하며 분기 최초로 TV쇼핑을 추월했다. 같은 기간 TV쇼핑은 전년 대비 5.3% 감

(카드승인실적 추이)

(단위: 조원, 억건, %)

구분	'17.2Q	'17.3Q	'17.4Q	'18.1Q	'18.2Q	
승인 금액	전체카드	185.6(4.0)	192.5(4.4)	192.7(3.3)	193.3(1.7)	202.2(9.0)
	신용카드	145.7(3.5)	150.6(3.9)	149.9(2.1)	151.3(0.4)	157.8(8.3)
	체크카드	39.7(6.2)	41.6(6.1)	42.6(7.3)	41.8(6.7)	44.2(11.4)
승인 건수	개인카드	150.1(11.2)	156.1(11.9)	156.9(8.7)	156.4(9.7)	163.0(8.6)
	법인카드	35.6(△18.2)	36.4(△18.9)	35.9(△15.3)	37.0(△22.1)	39.4(10.5)
	전체카드	45.4(14.5)	47.5(14.4)	46.0(10.7)	44.7(11.6)	50.2(10.4)
승인 건수	신용카드	27.4(13.9)	28.8(14.3)	27.7(9.8)	26.9(10.7)	30.0(9.7)
	체크카드	18.0(15.5)	18.7(14.8)	18.2(12.1)	17.7(13.1)	20.1(11.3)
	개인카드	42.7(14.7)	44.6(14.5)	43.1(11.0)	41.9(11.8)	47.1(10.4)
법인카드	2.8(11.4)	3.0(14.3)	2.8(6.3)	2.8(8.8)	3.1(9.2)	

개인카드의 승인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한 163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전 분기(9.7%)보다는 금액과 건수 모두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카드 종류별로는 체크카드의 꾸준한 약진이 계속됐다. 1년 새 승인건수는 17억7000만건에서 20억1000만건으로 11.3%, 승인금액은 41조7000억원에서 44조2000억원으로 11.4% 늘었다. 전체 카드 결제 건수가운데 체크카드 비중은

16년 2분기 39.3%, 17년 2분기 39.7%, 18년 2분기 40.0%로 소폭 증가했다.

한편 업종별 카드승인 현황을 보면 도매 및 소매업(8.1% ↑), 숙박 및 음식점업(9.4% ↑), 운수업(9.4% ↑), 정보서비스업(9.2% ↑) 등에서 증가폭이 컸다.

여신금융협회는 "미세먼지와 무더위 관련 가전제품 판매 증가, 수입차 구매 수요 증가, 편의점 이용 증가, 지속적인 온라인 구매 증가 등이 카드 이용 실적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안정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더 이상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미래 성장 동력 모색을 위해 국내외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들에 대한 전략적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보유 주식에 대한 평가 이익과 자회사 매각 이익도 반영됐다.

GS홈쇼핑은 "GS홈쇼핑은 TV홈쇼핑에 집중돼 있던 사업 역량을 데이터 중심의 모바일 커머스로 전환하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활동이 사업적인 시너지뿐 아니라 재무적인 성과를 가져다주고 있다"고 밝혔다.

/신원식 기자 tree6834@



[www.loannews.co.kr](http://www.loannews.co.kr)

# 서민들을 위한 금융신문

한국 소비자금융신문

-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올바른 금융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 저축은행, 카드사, 신용 정보업체, 대부 업체, P2P업체, NPL업체 등
- 제2금융에 대해 잘못 전달된 정보를 올바른 금융 정보로 바꾸겠습니다.
- 정확한 정보와 소식으로 안전한 저축과 합리적인 소비대출을 알려드립니다.

구독문의 | 02)721-9861



# 폭염 한창인데...구매서 설치까지 20일 '에어컨 배송대란'

(최대)

점통 더위에 에어컨 판매량 '급증' 업체들 추가 잔업 등 풀가동에도 배송·설치·수리서비스 길어져 여름 끝나갈 때 즈음 에어컨 도착



전자랜드 매장에서 에어컨을 보고있는 고객과 점원. /전자랜드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에어컨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이른바 '에어컨 대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보다 다소 더위가 늦게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에어컨 판매 대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를 뛰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가전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에어컨 판매 대수는 최대 26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250만 대) 기록을 뛰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 5~6월 기온이 예년

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에어컨 판매가 줄어드는 듯 했으나, 7월 들어 갑자기 시작된 폭염에 에어컨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전자랜드에 따르면 지난 23~29일 에어컨 판매량은 직전 동기(7월 16~22일) 대비 42%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5%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업체들은 에어컨 수급을 맞추기 위해 휴가까지 늦춰가며 생산 라인을 완전 가동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보다 한 달 빠른 3월부터 에어컨 생산라인을 완전 가동했지만, 최근 들어 평일 잔업을 추가 편성하고 있다. 또한 LG전자는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휴무에 들어가려던 계획이었으나, 생산라인을 정상 가동하기로 했다.

그러나 배송과 설치까지 드는 평균 기간이 길어지면서 에어컨 구매를 앞둔 소비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에어컨 설치 소요 기간은 평균 닷새 정도다. 전자랜드의 경우, 지역마다 상이하지만 통상 10~20일 정도 소요되고 있다.

여름이 채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데다, 배송과 설치 기간까지 길어지면서 에어컨 구매를 포기하는 소비자들도 있는

반면, 에어컨 대란과 맞물려 수리 기간까지 길어진 탓에 구매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들도 늘었다.

업계에 따르면 수리 서비스를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최소 2~3일에서 길게는 3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보니 온라인, 모바일, 홈쇼핑에서 구매하기보다 직접 가전 양판장을 찾는 소비자들도 늘었다. 가전 양판장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배송과 설치 기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 같은 '에어컨 대란'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자랜드 관계자는 "역대급 무더위에 올해 에어컨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무더위가 10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올해 에어컨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작년 수준을 순조롭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하계전력수급 대책회의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에서 열린 하계전력수급 대책 회의에서 백운규 장관(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신차 반복 고장시 환불 '레몬법' 내년 시행

국토부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하자 발생시 중재 거쳐 교환·환불

신차 구입 후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환불받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 시행된다. 환불금액은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km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차량을 이용한 만큼 차량 가격에서 제하는 대신 취득세와 번호판 가격은 포함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한국형 레몬법' 본격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교환·환불 요건,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내년 1월1일부터 신차 구매 후 중

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중대한 하자는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의 주행·조종·안전·연료공급장치, 주행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 등을 포함한다.

중재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서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두는 심의위가 내리는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중재 판정에 따라 교환 결정이 내려졌지만, 같은 차량의 생산 중단·성능 개선 등으로 같은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환불 기준도 마련됐다. 계약 당시 지급

한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필수 비용은 포함하도록 했다. 사용 이익은 국내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km라고 보고 이에 비례해 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판매가격, 인도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고장으로 인한 반복 수리(중대 하자 1회, 일반 하자 2회)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제작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인지하도록 소비자가 하자 재발을 통보하기 편리한 서식과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

/양성문 기자 ysw@

## 국민·지역과 함께 '새 국토정책' 수립

국토부, '제 5차 국토종합계획' 강원-충청-호남 개발 논의

우리 국토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년)' 수립에 앞서 지역 발전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31일 세종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지역별 미래발전 비전과 새로운 이슈 발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 14개 지역 연구기관이 모두 참석해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미래 비전과 과제를 공유했다.

지역 연구기관들은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자치분권 등이 향후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칠 핵심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충북과 강원에서는 경부축 중심의 발전으로 그동안 소외됐던 강원-충청-호남을 새로운 국토발전축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광역도시권 정책 추진 및 국토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제안도 이뤄졌다. 지방분권 기반의 대도시권 행정 네트워크를 구축해 부산-울산-대구-경남을 통합하는 1000만 광역생활권을

조성하는 한편, 세종권 광역 균형벨트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논의됐다.

압축도시의 보완책으로 '적정규모화(Smart Decline)' 전략을 추진하고, 체류인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 1시간 농촌 생활권을 구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적정규모화란 노후 공공시설을 재배치하고 읍면 단위의 연계협력력을 활성화하는 등 집적 경제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선 제로 에너지 스마트 도시 조성, 선도도시 조성, 전진기지 구축, 에너지·자율차·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등 의견도 제시됐다.

또 북지지역 최적 기준설정(Regional Optimum) 등 포용적 발전정책 추진, 낙후지역 집중 지원 및 광역경제권 협력을 통한 발전 격차 극복 등을 위한 공동체 생태계 조성 등의 아이디어도 나왔다.

국토부는 이날 논의된 결과와 국민·지자체·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금융권 '챗봇' 확대...개인정보는 걸음마 수준

금감원,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지적

금융회사가 챗봇(Chatbot)·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인간과 채팅이 가능한 로봇을 적극 활용해 금융서비스의 편리성을 높이는 가운데 챗봇 서비스 과정에서 금융고객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준이 미비해 정보유출 등 부작용이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이 챗봇을 통해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기준이 미비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7월 중 금융회사 352개사를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챗봇 운영현황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여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여부 등 서면 점검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챗봇 활용 과정에서 철저한 정보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금융회사들은 상품소개 및 고객상담 등이 가능한 챗봇을 도입해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챗봇은 비

대면 금융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단순 안내에서 카드발급, 대출, 보험계약 등 다양한 업무처리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안대책이 미흡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의 이상 작동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점검 결과, 일부 기업이 금융 고객이 챗봇과 대화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수집될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있었다. 게다가 일부 기업은 챗봇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파기기준도 미비한 상태였다.

또한 챗봇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등 자신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행사 방안도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시 개인정보 보호조치, 접근통제 강화, 보존기한 설정, 정보주체 권리보장 등 금융회사의 챗봇 도입관련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 한국인터넷진흥원

### 모든 ICT 분쟁조정 상담 '118'로 일원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일부터 기존상담번호의 사용을 중단하고 모든 정보통신기술(ICT) 분쟁조정 상담을 무료전화 국번없이 118(ARS 5번)번으로 일원화한다고 31일 밝혔다.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 인터넷주소분쟁, 정보보호산업분쟁, 온라인광고분쟁 관련 상담 및 조정 업무를 하고 있다. 그동안 ICT분쟁조정 관련 전화 상담은 외부 통신사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되어 왔으나 최근 자체 전화상담시스템이 구축됐다.

원활한 이용을 위해 내년 말까지는 기존 상담번호로 전화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국번없이 118로 상담번호가 변경됨을 안내하고, 이후 통화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 종료할 예정이다.

원활한 이용을 위해 내년 말까지는 기존 상담번호로 전화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국번없이 118로 상담번호가 변경됨을 안내하고, 이후 통화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 종료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수도권 뉴스

인천시 '공기업설명회' 개최

인천시는 오는 8월 30일 인천시청 중앙홀과 대회의실에서 '2018 인천지역 공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취업을 준비하는 인천 청년을 위해 인천시와 중부고용노동청,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KT&G 인천 본부가 공동개최하는 행사로 11개 공기업이 참가한다. 현장에는 각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참석해 기업설명회와 기업별 그룹상담 등의 방법으로 인천청년들에게 기업 홍보도 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도 해소해 줄 계획이다. 또한 블라인드 취업특강에서는 공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에 대비하는 방법과 이번 행사 참가기업의 최근 채용트렌드를 분석해 줄 예정이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인천시-인천관광공사 K-POP 한류콘서트 열린다

인천시(시장 박남춘)와 인천관광공사는 국내 최정상급 K-POP 한류콘서트인 INK2018(Incheon K-POP Concert) 콘서트를 오는 9월 1일 문학경기장 주경기장(미추홀구 매소홀로)에서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INK 콘서트는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인천시민들에게 문화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개최해온 K-POP 축제이다. 국내 최정상급 K-POP 스타의 공연을 보기 위해 매년 1만 여명 이상의 해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명실 공히 국내 최고의 한류 콘서트이다. /인천=최영주 기자

호남 소식

광주 송덕고 정읍시 일대 국토순례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해 사제동행 국토순례를 실시하고 있는 송덕고등학교가 올해는 전라북도 정읍시 일대에서 '의(義)와 선비의 고향을 찾아서'를 주제로 국토순례를 진행했다. 송덕고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전라북도 일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주제로 제7회 사제동행 국토순례를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서 학생들은 전라북도 정읍시 일대에서 '의(義)와 선비의 고향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동학농민 혁명 유적지인 만석보터, 전봉준 생가, 무명농민군 위령탑 등과 김명관 고택, 무성서원(최치원 배향), 내장산 용굴암(조선왕조실록 보관 터)을 답사하고 선비 문화 체험(선비놀이, 탁본을 통한 대나무 족자 만들기)을 진행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광주·전남 '광공업 생산율' 전년 비 5.6%

호남통계청 6월 산업활동 동향  
건축수주·운송장비·화학제품 ↓  
비금속광물·섬유·소매판매액 ↑

지난 6월 광주·전남지역 광공업 생산율이 전년 동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6월 산업활동 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광공업 생산율은 전년 동월대비 5.6%, 전월대비 4.2% 각각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분야 중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금속가공, 음료 등이 증가했으나 고무 및 플라스틱, 기계장비, 자동차 등이 감소했다. 광공업 출하는 전년 동월대비 4.0%, 전월대비 0.2% 각각 줄었다. 기계장비,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음료 등이 증가했으나 자동차, 고무 및 플라스틱, 1차금속 등이 감소했다. 광공업 재고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



불빛 영롱한 여수국가산단 야경

/뉴스

음향통신, 섬유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등이 감소했고 자동차, 기계장비, 전기장비 등은 증가했다. 전년 동월대비 11.2% 증가했으나 전월대비 3.0% 감소했다. 광주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1.1로 전년 동월대비 0.7% 증가했다. 백화점 판매는 전년 동월대비 1.2%, 대형마트는 0.1% 각각 증가했다.

6월 광주지역 건설수주액은 192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96.9% 감소했다. 발주자별로 공공부문은 74.0% 감소했고, 민간부문도 99.6% 줄었다. 공종별로는 건축부문이 96.7%, 토목부문은 98.7% 각각 감소했다. 6월 전남지역 광공업 생산은 비금속광물, 고무 및 플라스틱, 석유정제 등이 증

가했으나 기타 운송장비, 기계장비, 금속가공 등의 감소로 전년 동월대비 5.3% 감소했고, 전월대비 0.8% 줄었다. 광공업 생산자제품 출하는 비금속광물, 섬유제품은 증가했으나 기타 운송장비, 1차금속, 화학제품 등은 감소했다. 전년 동월대비 7.4%, 전월대비 4.3% 각각 감소했다. 광공업 재고는 비금속광물, 나무제품, 금속가공 등이 감소한 반면 1차금속, 식료품, 화학제품 등이 증가해 전년 동월대비 9.3% 늘었다. 전월대비는 5.1% 증가했다. 전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88.4로 전년 동월대비 1.1% 증가했다. 6월 전남지역 건설수주액은 2349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23.0% 감소했다. 발주자별로 공공부문은 44.5%, 민간부문은 10.1% 감소했다. 공종별로 건축부문은 56.1% 감소했으나, 토목부문은 18.2% 증가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경기도 도시가스 2.8% 인하... 가구당 1275원 '뚝'

(연간)

이달부터 소매공급비용 인하  
생활 안정·생활비 절감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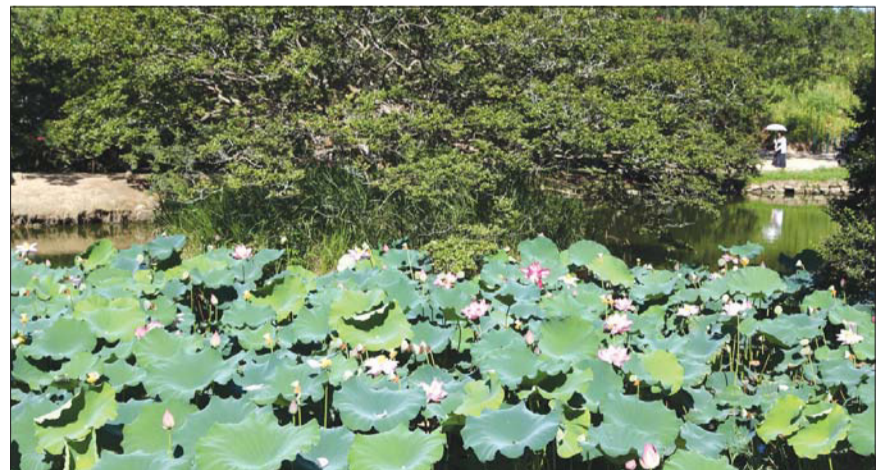
경기도가 8월부터 적용하는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2.8% 인하한다. 이에 따라 도내 가구 당 연간 1275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도는 8월 1일부터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가 수요처에 공급하는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2.8% 내린다고 31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난 7월 원료비 상승에 따라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도매요금이 약 4% 인상되

면서 도민의 연료비 부담이 가중된 바 있다. 이번 경기도의 소매공급비용 인하 결정으로 도민의 생활 안정과 생활비 부담 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은 지역별 도시가스회사가 수요처에 공급하는 비용으로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현행법인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및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거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는 도매요금(90.2%)과 시·도시자가 승인하는 소매공급비용(9.8%)을 합해 정해진다.

이번 인하는 도내 6개 도시가스회사의 적정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지난 겨울 이상한과 영향으로 급증했던 도시가스 판매량을 정산, 소매 공급비용을 기존 1,4337원/MJ에서 0.0402원(2.8% ↓) 내린 1,3935원/MJ로 결정했다. 이번 소매공급비용 인하에 따라 추산된 주택용 난방요금은 1,4797원/MJ으로, 작년 세대별 연평균 사용량을 감안할 때 전년 대비 연간 약 1275원의 생활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열 기자 kimsy@



도시가스 공동주택의 배관라인. /유투이미지



연꽃 핀 담양 명옥헌

31일 오전 전남 담양군 고서면 명옥헌 원림 연못에 연꽃이 활짝 피어 있다. /연합뉴스

성남시 공동주택 1만곳 특수형광물질 도포

성남시는 침입 범죄 사전 예방 조치의 하나로 최근 두 달 간 사업비 8000여 만 원을 들여 단독·공동주택 1만210곳에 특수형광물질을 추가 도포했다. 이로써 2014년 5월부터 이번까지 특수형광물질이 칠해진 곳은 모두 4만9880곳으로 늘었다. 들어간 사업비는 모두 6억3000만원이다. 성남시 관내 경찰서 통계자료에 따라

면 특수형광물질 도포 전인 2013년 1312건이던 절도 침입 범죄 건수는 지난해 515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침입범죄 발생률이 60.7% 줄어든 셈이다. 성남지역에 특수형광물질이 도포된 곳은 다가구, 단독주택, 아파트 등이다. 성남시는 내년도에는 도비를 받아 지역 내 3500여 곳에 특수형광물질을 추가 도포할 계획이다. /성남=김승열 기자

"워라벨로 근무혁신... 휴가 떠나라"

이성호 경기도 양주시장

이성호 경기도 양주시장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직원들에게 '워라벨' 근무혁신을 주문했다. '워라벨'은 1970년대 말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Work and Life Balance(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의 줄임말로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으로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워라벨 지수는 10점 만점에 4.7점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32위를 기록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이 시장은 전직원에게 메시지를 통해 여름 휴가철 직원들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휴가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인 일과 삶의 균형에 맞춘 일할 때 일하고 싶 때 일 수 있는 '워라벨 근무혁신'을 강조했다. 이 시장이 강조한 워라벨 근무혁신 10대 과제는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퇴근 후 업무연락자제, 업무집중도 향상으로 장시간 근무관행 바꾸기, 똑똑한 회의 등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워라벨 근무혁신 10대 과제의 이행을 관리자인 부서장부



이성호 양주시장 /양주시

터 적극 실천해 달라"며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워라벨의 실천이 직원 개인과 직장, 모두에게 행복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 주 수요일, 금요일 정시퇴근을 하는 가족사랑의 날을 운영하고 근무혁신 10대 과제가 포함된 삶의 섹표, 누리고 그리고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경기 양주=고성철 기자 ksc@



www.myhair.co.kr

# 김찬월 연구한 특허가발 착용감이 다릅니다.

접착 · 클립 · 테잎 **NO**

특허 KS가발은 가려움 방지, 탈부착 간편합니다.

정수리 밀지않는  
특허 결속 고정 가발

특수한 재질 사용하여 통풍이 우수하고 매우 경제적입니다.  
(타사가모 고정 가능)

다양한 여성용  
신제품 개발

특수한 기술로 뒷부분이 들뜨지 않는 가발!  
항암가발 50% 특별할인

## 김찬월가모 명가명품 기술입니다.



라클라스 부분가모

남녀 부분가모 작품 전시실



국내최초  
남녀 부분가모  
작품 전시실



30년 기술의 신지식인 김찬월연구가 자랑스런 대한민국 명가명품대상 선정

1995년 10월 3일 MBC 생방송 '아침만들기' 한국 최초 가발관련 방송 출연  
2018년 2월 14일 채널A '김형욱의 굿모닝-알고있나요' 출연

- MBC '화제집중' 출연
- SBS '인생대역전' 출연
- SBS '모닝와이드' 출연
- KBS '뉴스투데이' 출연
- KBS '생로병사의 비밀' 출연

- 압구정점 02-545-4800
- 서울역점 02-717-0046
- 서울시청점 02-747-3500
- 대구범어점 053-744-4343
- 대구7호광장점 053-571-6002
- 인천부평점 032-503-5707
- 부산역점 051-467-1300
- 부산서면점 051-802-2882

대표전화 1544-55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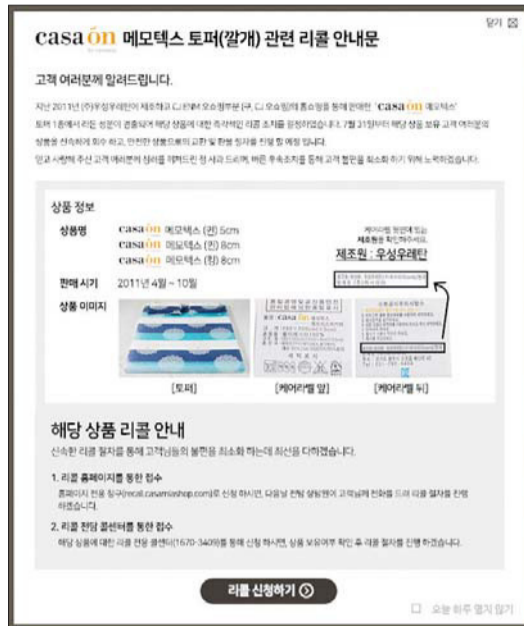
# 까사미아로 번진 ‘라돈 공포’... “주먹구구식 수거·교환”

1만2천개 판매된 토퍼·베게서 라돈 검출 소비자 리콜대상 인지 못하는 등 수거 한계 대진침대, 두 달 넘도록 미수거 제품 산적

대진침대에 이어 신세계 계열사인 까사미아의 일부 매트리스 제품에서도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됨에 따라 일상 생활에서 ‘라돈 침대’ 공포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라돈침대 문제가 불거진 지난 5월 중순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대진침대 관련 제품을 ‘한 달내 수거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두 달이 훌쩍 넘도록 여전히 많은 제품이 수거되지 못해 집에 고스란히 방치하고 있는 소비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관련 제품을 판 대진침대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전화번호를 3개 공시해 상담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 받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소비자는 반납하지 못한 라돈침대를 처치하기 곤란해지자 아예 라벨만 떼고



까사미아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그대로 내놓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원안위는 까사미아가 판매한 토퍼 세트(토퍼+베게)에서 안전기준

을 초과한 라돈이 검출돼 행정조치를 명령했다. 대진침대가 불을 붙인 라돈 공포가 까사미아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다.

토퍼란 주로 침대 매트리스 위나 바닥에 까는 두께 10cm 미만의 매트를 말한다. 이번에 라돈이 검출된 제품은 까사미아의 ‘까사온 메모텍스’로 2011년 당시 CJ오쇼핑을 통해 총 1만2395개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까사미아측은 원안위의 권고에 따라 바로 관련 제품 전량 회수에 들어갔다. 제품이 이후 단종돼 현재는 판매되지 않고 있지만 판매된 제품이 모두 수거 대상이다.

아울러 까사미아는 회수 제품에 대신 안전이 확인된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본사에 자체 물류팀이 있고, 직원들까지 총 동원해 가급적 빠르게 제품을 수거할 계획”이라며 “수거 기한도 따로 정해놓지 않고 신속하게 리콜을 진행한다는게 회사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관련 제품은 판매 당시 소비자값이 약 35만원이 었지만 교환할 제품은 가격이 60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비자가 교환이 아닌 환불을 원할 경우엔 관련 3개 모델 가격에 따라 20만~40만원 사이에서 현금으로 돌려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사와 판매업체인 흡소피아 등을 통해 수거한 제품을 위해 현재 전국에 4곳의 물류창고도 확보해 놓은 상태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관련 제품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수거에 한계를 드러내 반납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총 31개 매트리스 모델이 리콜 대상인 대진침대의 경우 문제가 불거진 5월부터 수거에 들어가 지금까지 4만1000여 개가 수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납한 제품은 충남 천안 본사와 당진 야적장에 쌓여있는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7000여개는 수거되지 못한 상태다.

2007년에 대진침대 관련 모델을 구입했다는 서울의 유모씨는 “한 달 반 전에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지금까지 회사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통화가 되질 않아 집에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라면서 “원안위에 민원도 넣었지만 접수 후 처리기한이 연장됐다는 답변만 왔을 뿐 뾰족한 수가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셀트리온, 램시마 美 배지특허 소송 승리

셀트리온이 미국 ‘램시마(판매명 인플렉트라)’와 관련된 마지막 특허 침해 소송인 안센의 배지특허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30일 미국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안센이 제기한 램시마의 배지 기술 침해에 대한 균등침해 주장이 부당하며, 셀트리온은 안센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안센은 2015년 3월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 제조에 사용하는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영양성분이 포함된 배지에 관한 미국 특허를 침



해했다며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이번 판결로 마지막 남아 있던 안센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며 파드너사인 화이자(Pfizer)를 통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램시마의 본격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인용 기자

## 프랜차이즈 창업, ‘자체 공장’ 확인하셨나요?

동일한 맛·품질 위한 핵심요소  
식재료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편리성·위생 우수해 신뢰 제고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맛과 품질을 제공하는 것이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이다. 이를 충족하려면 각 매장 별로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이 필수다.

31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최근 조리제품 생산시설(CK), 물류센터 등 인프라 확대에 나서고 있다.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은 물론 식재료의 위생, 점주들의 편리성, 새로운 수익 창출까지 고려하기 때문이다.

‘한촌설렁탕’과 ‘육수당’을 운영하는 이연에프엔씨는 최근 충북 오송바이오폴리스 지구에 1만6529㎡ 규모의 CK공장 설립에 들어갔다. 이 공장은 현재 운영 중인 충북 음성 공장에 이은 2번째 공장으로서, 최근 한촌설렁탕과 육수당 가맹점수가 증가하면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생산과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이연에프엔씨는



곰창고 공장.

/곰창고

오송CK공장이 완공되면 매장에 보다 높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고 공장에서도 생산되는 육수 등 식재료 유통을 통해 기업 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파파존스는 하반기 품질관리센터 겸 물류센터인 ‘QCC’를 확장한다. QCC는 전국 300개 매장의 배달물량 공급이 가능한 규모로 지어진다. 파파존스 QCC는 ‘세계 어디서나 피자 맛이 같아야 한다’는 설립자 존 슈내터 회장의 이념을 지키고, 안정적인 가맹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곰창 프랜차이즈 ‘곰창고’는 경기도 광

주에 육류 공장소스 공장을 현재 운영 중이다. 육류 공장은 곱창고의 모든 육류를 가공하는 곳으로, 곱창뿐만 아니라 모든 재료를 사람의 손으로 손질하는 등 세심하고 꼼꼼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소스 공장 역시 소스를 만들고 연구하고 있다. 곱창고는 공장에서 깔끔하게 손질된 곱창고 소스를 안전하게 진공 포장된 상태로 각 매장들에게 전달하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가맹 점주들이 쉽게 곱창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외식 기업 ‘디딤’도 소스와 양념육류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보유, 전국의 직영매장과 가맹점주 매장에 직접 재료를 납품하고 있다. 디딤의 자체 공장은 위생에 특히 신경 쓰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 전달을 위해 지난 2008년 HACCP 인증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 공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식재료의 차별화, 메뉴 개발, 서비스 강화를 이룰 수 있게 돼 마포갈매기 등 프랜차이즈와 백제원, 도교하나 등과 같은 직영매장 등 다양한 브랜드를 론칭해 새로운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우신티그먼트, 라오스덤 이재민 성금 4000만원 전달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과 우신티그먼트는 라오스 덤 붕괴사고 이재민을 위한 성금 4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지난해 포항지진 등 국내 재난피해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016년 에콰도르 지진, 2015년 네팔 지진 등에도 성금을 지원하며 국제구호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왼쪽부터)대한적십자사 박경서 총재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서석홍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 벤처·스타트업 선후배 8월 말 제주서 모인다

벤처기업협 ‘18회 벤처썸머포럼’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을 일구는 선·후배 기업인들이 8월 말 제주에서 뭉친다. 벤처기업협회는 8월29일부터 31일까지 2박3일간 제주 하얏트리조트에서 ‘제18회 벤처썸머포럼’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벤처썸머포럼은 벤처기업협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주최하며 한국어

성벤처협회, 제주테크노파크, KDB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가 공식 후원한다.

벤처썸머포럼은 선배벤처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이 네트워킹을 통해 서로 보유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해 미래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혁신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참여를 원하는 기업인은 오는 8월16일까지 협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 동아ST 반부패 국제 인증 ‘ISO 37001’ 획득

동아ST는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ISO 37001은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시하는 표준에 따라 운영하는 리베이트·금품·뇌물 방지를 위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다. 모든 임직원에게 부패방지, 윤리경영을 위한 역할과 의무가 부여된다.

ISO 37001 인증을 위해 동아ST는 지난해 11월 내부심사원 24명을 선정하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과 구축을 위한 부패방지위원회를 구성했다. 각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뇌물 리스크 식별 및 평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운영프로세스 점검 및 관리, 교육훈련 및 문화확산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동아ST는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지난 4월 1단계 서류심사, 23일부터 25일까지 2단계 현장심사를 거쳐 31일 ISO 37001 인증을 받았다. ISO 37001은 인증 후 1년 내 사후심사를 받게 되며, 3년 후 갱신심사를 받는다.

동아ST는 2007년 업계 최초로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및 자율준수편람과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2010년 CP팀을 신설한 이후 2014년 조직을 CP관리실로 확대하고 대표이사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했다. 2015년에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회 CP등급 평가에서 ‘AA’ 등급을 받는 등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박인용 기자

## 이대목동병원 공공보건의료 의사직 임상교육 사업자로 선정

이대목동병원은 공공의료사업센터가 공공보건의료인력 의료임상교육 의사직 교육과정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공공의료사업센터는 지난 2014년부터 간호직 임상교육과정을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민간 의료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의사직 임상교육까지 맡아 진행하게 됐다. 센터는 의사직 임상교육을 올해 10월 중 실시할 예정으로, 급·만성 창상관리의 주제로 전문적인 창상관리 지식 및 관련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 워크숍 등 다양한 참여식 교육과정으로 구성해 진행할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



# 추석선물 사전예약 40% 할인... 얼리버드족 "이미 한가위"

### 추석 앞두고 사전예약 판매 잇따라 수요 '꾸준'... 예년보다 일찍 돌입

9월 추석을 앞두고 주요 대형마트들이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에 나선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은 최근 선물세트에 대한 사전예약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예년보다 일찍 사전예약 판매에 돌입하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프로모션이 있는 사전예약을 통해 실속있게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전예약 기간과 상품 수를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기간에 선물세트를 구입할 경우 최대 40%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사전예약 매출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에는 2016년 추석 대비 2.4%포인트 높은 21%를 차지했으며, 올해 설 역시 지난해 추석보다는 2%포인트 높은 23%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등 사전예약 매출은 점점 상승세로, 올 추석 역시 사전예약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마트 역시 지난해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기간 매출은 전체 선물세트 매출 구성비의 35%를 차지했다. 이는 2016년 추석



모델들이 명절 선물세트를 소개하는 모습.

/롯데쇼핑

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 구성비(20%) 대비 15%포인트 가량 신장한 수치다.

이에 이마트는 8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국 점포와 이마트몰을 통해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역대 사전예약 중 가장 긴 기간인 42일간 진행되며, 상품 수 역시 작년 추석과 비교해 100여 개 늘어난 290종의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2013년 추석 이마트의 사전예약행사

기간은 17일, 품목은 113종이었지만 5년 만에 기간과 품목이 약 2.5배 늘어난 것.

이마트는 이번 추석 사전예약을 행사를 위해 선물세트 구매 시 최대 40% 할인, 구매 금액대별 상품권 증정 등 다양한 프로모션도 준비했다.

주요 프로모션은 대량구매 고객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 것이다. 기존 1000만원 이상 구매 시 10%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하던 것을 올리는 최대 15%의 금액을 증

정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또 선물세트를 일찍 구매할수록 상품권 지급 비율이 높은 '얼리버드 프로그램'을 통해 2일부터 22일까지 100만원 이상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더 높은 금액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롯데마트는 하루 앞선 1일부터 9월 12일까지 43일간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특히 단독상품과 프로모션을 강화했다.

이번 사전예약을 위해 준비한 품목은 한우, 과일 등 신선식품 68종과 통조림, 식용유 등 가공식품 165종, 양말 등 생활용품 73종 등 총 306개 품목으로 사상 최대다. 사전예약 기간에만 만나볼 수 있는 단독 선물세트도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유럽산 고급 치즈 중 가장 인기 있는 7종을 엄선해 구성한 단독 선물세트인 '유러피안 치즈 선물세트'와 치즈와 버터, 올리브를 세트 구성해 간식이나 와인에 곁들이기 좋고 요리에도 활용 가능한 선물세트인 '치즈 & 도마 세트' 등이다.

'얼리버드 프로모션' 혜택도 상당하다. 8월 1일부터 22일까지 선물세트를 구매한 고객에게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150만원 롯데 상품권을 증정한다.

더불어, 사전예약 기간에 롯데, 비씨

등 10대 카드(롯데/비씨/신한/KB국민/현대/NH농협/하나/우리/광주은행/전북은행)로 결제하는 모든 고객에게 최대 4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홈플러스는 이마트와 같은 기간인 8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 사전예약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사전예약 고객이 12대 카드(마이홈플러스신한카드/신한/KB국민/삼성/현대/BC/하나/롯데/NH농협/우리카드/전북JB카드/광주KJ카드)로 결제할 경우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최종 결제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 상품권 또는 즉시할인 중 고객이 선택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주류 등 일부 선물세트는 제외된다.

오직 홈플러스에서만 선보이는 단독 선물세트로는 '해발 500m 백두대간 사과 세트' '전통양념 소불고기 냉동세트' '정관장 홍삼원' 등이 있다. 3만원 이상~5만원 이하 실속세트는 'CJ 특별한 선택 N2호' '대상 청정원 H8호' '견과품은 흑화고 혼합세트' '전복세트'가 준비되어 있으며, 10만원 이하 가성비세트는 '미국산 L A식 꽃갈비 냉동세트' '명품명선 사과·배 혼합세트' '농협 안심한우 제주용 정육 냉동세트' '이력추적 참굴비세트 4호' 등이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햇반' 올해 누적매출 2000억 돌파

### CJ제일제당

#### 전년동기비 매출 25% 이상 성장 출시 후 총 1조5000억 매출 예상



CJ제일제당은 올해(7월 누계) '햇반' 누적매출이 2000억원을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 대비 25% 이상 성장했으며,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햇반' 연매출은 4000억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에는 출시 이후 총 누적매출 1조5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밥을 사먹는다'는 개념조차 없던 20년 전 선제적 투자와 기술혁신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과 성장에 집중했기 성공요인이 됐다.

올해 누적 판매량은 2억개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국민 1인당 '햇반'을 4개 이상 먹은 셈이다. '햇반=집밥'이라는 인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상승세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햇반'은 지난 2011년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 1억개를 돌파한 데 이어, 2015년에는 2억개를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지난해 연간 판매량은 3억개를 넘어섬에 2년 만에 1억개 이상 늘어났다.

매출성장에 힘입어 상온 즉석밥 시장 내 '1위' 지위도 확고히 했다. 올해는 시장점유율 70%대까지 올라서며 경쟁사와의 격차를 한층 더 벌렸다. CJ제일제당은 올해(5월 누계) 상품팔 시장에서 지난해 대비 6.7%p 상승한 76.1%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CJ제일제당은 지속적으로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차별화된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마케팅활동을 강화해 '햇반' 소비 확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햇반'의 성과와 성공은 압도적 R&D 역량과 혁신기술 확보가 기반이 됐다.

대표적으로 '당일 도정'을 꼽을 수 있다. 쌀은 도정을 하는 순간부터 수분 함량이 떨어지며 밥맛이 떨어지는 데, '햇반'은 2010년부터 자체 도정 설비를 도입해 생산 당일 도정한 쌀로 밥을 짓고 있다. 자체 도정설비를 통해 맛 품질 뿐 아니라 쌀의 종류별 맞춤 도정도 가능해졌다. 쌀의 특성에 맞춰 최적의 도정 조건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무균화 포장 기술로도 차별화시켰다. 무균화 포장이란 반도체 공정 수준의 클린룸에서 살균한 포장재를 이용해 밥을 포장하는 기술이다. 무균화포장을 거친 완제품은 균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보존료를 전혀 첨가하지 않고도 장기간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고 '갓 지은 최고의 밥맛'을 낼 수 있는 장점을 갖췄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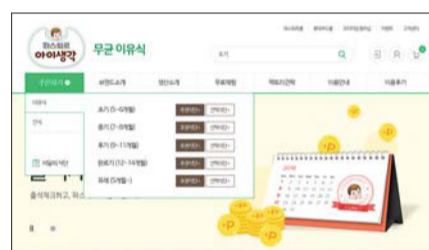
## 롯데푸드 파스퇴르 '아이생각 물' 오픈

### 배달 이유식 전용물... 54종 운영

롯데푸드 파스퇴르가 베이비푸드 온라인몰인 '아이생각 물'을 오픈했다고 31일 밝혔다.

배달 이유식 온라인 전용몰인 아이생각 물은 아이생각 브랜드 소개, 배달 이유식 및 유아용 간식 주문하기, 무료체험 신청, 견학신청, 이벤트 게시판 등으로 구성됐다. 아이생각 물은 아기 개월 수와 치아 발육 상태, 몸무게 등에 따라 주문화면이 구성돼,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주문할 수 있다. 또 추천식단을 제공해 배송일지만 정하면 초보 부모들도 편리하게 추천 식단을 구성할 수 있고, 선택식단을 통해 개성 있는 나만의 식단 구성도 가능하다.

파스퇴르 아이생각의 제품라인은 크게 온라인 전용물을 통해 주문하는 배달 이유식, 일반 유통점을 통해 판매되는 리테일 이유식, 음료, 간식으로 구성된다.



배달 이유식은 전체 54종을 운영한다. 단계별로 ▲초기 180g 한우청경채 미음 등 6종 ▲중기 180g 두부감자시금치 볶은 죽 등 12종 ▲후기 180g 한우사과나타리 버섯죽 등 18종 ▲완료기 180g 흑미영양진밥 등 18종 등이다.

리테일 이유식은 일반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고, 실온 보관으로 장기 보관도 가능하다. 휴대성도 좋아 외출 시 간편히 먹일 수 있다. 메뉴는 ▲중기 180g 닭가슴살고구마비타민채 볶은죽 등 2종 ▲후기 180g 한우당근애호박죽 등 2종 ▲완료기 180g 한우감자당근 진밥 등 2종 등 전체 6종이다. /박인용 기자

## 롯데百 지역 특산물 판로개척 앞장

### 백화점 최초 '향토특산물관' 선포

롯데백화점은 8월 3일부터 9일까지 잠실점에서 전국 각 지역의 롯데아울렛에 입점해 있는 '향토특산물관' 5개 점포의 우수 상품전을 백화점에서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향토특산물관은 생산자 판로확보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로컬푸드 전문매장으로, 롯데백화점의 지역 상생협력 모델로 정부 중앙부처 또는 관할 지자체와 협업체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발굴, 판매해 지역 특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지역 상생관이다. 현재 파주, 이천, 부여, 동부산, 김해 아울렛 5개 점포에서 4000여 품목을 운영 중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특산품을 최대 40% 할인하고 사은품 행사도 진행한다. 참가 업체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사업인 경남·충남 6차산업과 이천시가 운영 중인 임금님표 브랜드, 파주시가 지원하는 김포파주인삼농협, 부산 기장군의 대표 특산물인 미역과 다시마를 전문 유통하는 동부산농협이 참가 예정이다.

대표 품목으로는 국내 유일의 연(蓮) 연구가 '왕군자' 명인(대한명인 11-353호)이 직접 만든 연잎차가 판매될 예정이고, 기장군의 대표 특산물인 미역·다시마, 이천시 특산물인 쌀로 만든 아이스크림, 충남서산 '최영자' 명인의 생강조청 등 총 30여명 생산자의 200여 상품에 판매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 '프리미엄 식재료에 열리는 지갑'... G9, 전년비 객단가 33% ↑

### 낙지·오징어 등 해산물 4배 올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프리미엄 식재료에 지갑을 여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큐레이션 종합쇼핑몰 G9(지구)에서 올해 상반기(1월 1일~7월 29일) 판매된 신선식품의 1인당 평균 구매 객단가를 분석한 결과, 작년 동기 대비 무려 33%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식품을 구입할 때 평균 10만원을 쓴 고객이 올해는 평균 13만 3000원을 지불했다는 의미이다.



신선식품 중 평균 구매 객단가가 가장 크게 증가한 품목은 '수산물'로 나타났다

다. 낙지와 오징어 등의 해산물 구매 객단가는 작년 대비 4배 이상(322%) 급증했고, 이외에 연어, 횡감생선 등의 생선류 객단가가 161%, 조개류가 144%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였다. 배송 과정에서 변질의 우려가 있는 수산물의 경우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하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돼지고기(146%), 한우(125%) 등 육류 구매 객단가 역시 2배 이상 증가했고, 나물류(94%), 버섯(63%), 쌀(47%), 수입과일(37%) 등도 모두 신장하는 추세를 보였다. /신원선 기자



# LG디스플레이, 미혼모 위한 OLED 조명등 전달

## 직접 제작한 조명등·아기용품 전달

LG디스플레이는 미혼모 30명에게 임직원 봉사자들이 직접 제작한 OLED조명등과 아기 용품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OLED조명담당 임직원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OLED조명사업 사업담당에서 플렉서블 OLED 조명패널 30개를 기증하고 상품기획팀에서 미혼모의 수요등을 맞춤형 디자인했다.

OLED 조명은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빛 깜빡임 현상과 청색광이 적고 은은한 빛을 내 눈의 피로를 줄여준다. 또 발열이 적고 유해물질이 없어 친환경제품으로도 손꼽힌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OLED 조명영업1팀 김용진 책임은 "업무로 늘 접하던 OLED조명이지만 꼭 필요한 이웃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어



LG디스플레이 임직원들이 미혼모를 위한 OLED수유등을 직접 제작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서 보람을 느꼈다"며 "작은 도움에도 기뻐하

었나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안희만 홈플러스 e파란재단 이사장, 배우 김보성, 이종명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장(왼쪽부터)이 지난 30일 서울 마포구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서 성금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홈플러스

## 홈플러스 e파란재단

# 백혈병 소아암협회에 1억원 기부

홈플러스 사회공헌재단 e파란재단이 백혈병 소아암협회에 1억원을 전달했다.

홈플러스 e파란재단은 백혈병소아암어린이 지원 사업을 보다 색다르고 신선하게 홍보하기 위해 유튜브 인플루언서 '숏포러브'와 협업 영상을 제작해 SNS를 통해 선보였으며, 모금된 1억원을 백혈병 소아암협회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유명 유튜브 채널인 숏포러브는 '축구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비전을 배경으로 다양한 축구 관련 영상을 흥미롭게 제작해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하는 크리에이터이다.

이번에 제작된 영상을 통해 홈플러스 e파란재단은 동영상 1번 볼 때마다(1 view) 100원을 기부, 100만 뷰 달성 시 최대 1억원을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기부하기로 했다. 해당 영상은 4일만에 100만 뷰를 달성했다.

기부금은 소아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치료비를 비롯해 소아암 아동, 청소년 및 형제자매를 위한 성장 교육 프로그램, 소아암 부모활동가 양성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현구 홈플러스 e파란재단 사무국장은 "이번 기부는 전 세계의 관심사였던 축구 관련 동영상 제작함으로써 흥미를 유발시키고 SNS 채널을 통한 기부활동이라는 새로운 포맷을 통해 누구나 쉽게 기부가 가능했던 새로운 시도의 사회공헌활동이었다"며 "앞으로도 흥미와 접근성을 가미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스타필드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문화체험 선물

스타필드가 새로운 지역친화 나눔실천 프로젝트를 선보이며 사회공헌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한다.

스타필드는 오는 8월 1일부터 23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1000명의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스타필드 내 스포츠 몬스터 체험, 메가박스 영화 관람, 식사 제공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자는 하남시 지역 아동 430명, 고양시 지역 아동 570명 등 총 1000명으로 하남시, 고

이처럼 스타필드가 새로운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한 이유는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가정 형편상 휴가를 떠나지 못하는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여름방학기간 동안 스타필드에서 즐겁게 놀며 다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 것이다.

스타필드는 지난해 말,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지역내아동센터 12곳 및 봉사단



스타필드 하남. /신세계

체에 비품 교체 등을 지원해 지역내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오늘의 운세

8월 1일 (음 6월 20일)

http://www.saju4000.com

**쥐** 48년생 무더위 시작되니 건강을 조심. 60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으나 자중해야 할 때이다. 72년생 어디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한 하루. 84년생 강을 건넌어도 배는 소중히 보관해야 다음에 쓸 수 있다.

**소** 49년생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 실망하지 않는다. 61년생 남의 부러움을 살만한 결과를 보게 된다. 73년생 노란색, 숫자 3이 오늘 행운을 준다. 85년생 꽃 피고 새가 지저귀니 무엇을 해도 좋은 결과를 보겠다.

**호랑이** 50년생 기쁨이 해갈되듯 일이 술술 풀린다. 62년생 우물이 곁에 있어도 두레박을 찾을 수 없으니 답답. 74년생 어려운 일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해결. 86년생 좋은 결과는 올바른 선택에서 비롯됨을 명심.

**토끼** 51년생 개나리를 보고도 볼을 못 느끼는구나. 63년생 고집을 세우면 부모도 외면하는 법이다. 75년생 새로운 기회가 오니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87년생 금전 문제로 속상할 일이 생긴다.

**말** 52년생 현실에 만족해야 마음이 편안하다. 64년생 상대의 작은 실수를 덮어 주면 큰 보답으로 돌아온다. 76년생 마음이 울적하니 친구가 위로를 준다. 88년생 신세 진 사람의 빛을 갚아야 하는 날이다.

**뱀** 53년생 많은 꿈을 얻으려면 벌을 키워야. 65년생 오늘 걸어야 내일 뛰지 않으니 쉬지 말고 전진. 77년생 아랫사람을 책망 말고 서류를 잘 살펴라. 89년생 변화가 있는 날이니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자.

**말** 54년생 지고도 이기는 것이 있으니 때로는 저 주는 것도 좋다. 66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시간 낭비. 78년생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음을 명심. 90년생 머물기도 어렵고 떠나기는 더 어려운 하루.

**양** 55년생 남의 도움을 받게 되니 시비도 생길 수 있다. 67년생 재물로 인한 갈등이 생겨도 나에게 유리한 날. 79년생 예의 바른 행동이 나를 높여 준다. 91년생 능력 이상의 일도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다.

**원숭이** 56년생 주변 사람들의 의견 차이로 손해가 발생. 68년생 계획은 원대하게 세우나 노력이 따르지 않는다. 80년생 공들인 탐은 헛사리 무너지지 않는 법이다. 92년생 구설수를 조심하고 특히 뒷사람과의 대화에 주의.

**닭** 57년생 운이 상승하니 용기를 내어 일을 추진. 69년생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안 하는 것이 좋다. 81년생 북서쪽으로 역마의 운이 있으니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겠다. 93년생 때가 왔으니 힘껏 정진하라.

**개** 58년생 조금함이 화를 부른다. 70년생 자신 없는 일을 맡아 온종일 마음이 불편하고 좌불안석. 82년생 발전이 느려 답답하나 오늘은 현상유지가 최선이다. 94년생 스스로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준다.

**돼지** 59년생 사랑이 찾아오니 자손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71년생 일의 결과가 좋아서 명예를 드높이는 날. 83년생 소금장사 나가는데 비가 내리는 격. 95년생 새 인연으로 새로운 거래가 성사되니 기쁘다.

# SUDOKU

##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9	2				8	1	5
8	1						3	7
1	7		8	5			4	9
			6	7				
		4				5		
9			3	4				2
	5						8	
	4	8				3	6	

				1	4	6		
6		9	5	3	8	1		7
	3	7	8		2	9	6	
2		8				7		3
	1	5	3		7	2	4	
8		4	2	5	1	3		6
				9	8	4		

스도쿠 정답								
1	9	8	6	2	5	8	7	2
7	8	6	1	9	2	2	5	8
2	5	2	7	8	8	1	9	6
8	2	5	8	6	1	7	2	9
8	2	1	2	7	9	6	8	5
6	7	9	5	2	8	8	2	1
2	8	7	2	5	6	9	1	8
5	1	8	9	8	2	2	6	7
9	6	2	8	1	7	5	8	2
2	8	7	8	2	9	1	6	5
1	2	5	7	8	6	9	2	8
9	6	8	1	5	2	7	2	8
8	7	2	2	9	8	5	1	6
8	2	2	5	6	7	8	9	2
5	9	6	2	1	8	2	8	7
2	2	1	8	8	5	6	7	9
6	8	9	7	1	2	2	5	2
7	5	9	6	2	2	8	8	1

문제 제공= 보너스



## 김상회의四季

### 아름다운 도자기 인생의 비밀

마흔 중반의 남자가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당했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운을 다해 살아남 방법을 찾아다녔다. 장사를 하면 좋은 사주라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퍼뜩 머리를 스쳤다. 진중하게 상담을 청한 그는 편재격으로 신앙하면서 재물로 왕성한 사주였다. 상담 활동이나 사업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는 운세가 그에게 있었다. 생전 처음으로 장사를 시작해서 성공한 사장님이 됐다. 서른 후반의 다른 남자는 회사에서 업무 실수로 징계를 받고 지방공장 좌천인사가 됐다. 밀려서 내려갔지만 실의에 빠져 지내지 않았다. 전공을 살려 공장의 효율성을 더 좋게 만들어 애썼고 제작공정을 일부 바꾸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걸 발견했다. 본사에 건의를 해서 시스템을 바꿨고 회사는 5억을 절약할 수 있었다. 그는 건록격 사주로 월(月)에 뿌리가 있어 관운이 좋은 편이었다. 곤경에서도 사주를 제대로 살린 사례였다.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다. 넘어진 곳에서 그냥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일어났고 더 나은 스스로를 만들어갔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듣는 말이 있다.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나요." "왜 내 팔자는 이 모양일까요." 하는 말이다. 그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겐 공통적인 현상이 벌어진다. 자기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지 못하고 한 번 수렁으로 들어가면 자포자기에 빠진다는 점이다. 장사가 안 되어 곤경에 처한 업주가 있었다. 위기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쩔 줄 모르고 전전긍긍 했다. 문을 닫을 정도는 아니니 여섯 달만 기를 쓰고 버티라고 했다. 그때쯤부터 운세가 달라지는 시기였던 것이다. 몇 번을 말했는데도 결국 지레 겁을 먹고 문을 닫았다. 스스로 무너진 셈이다.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 잡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가올 운세도 버린 꼴이다. 예전에 도자기 공장에 갈 기회가 있었다. 공장 한쪽에 두 종류의 도자기가 눈에 들어왔다. 한 쪽은 윤기가 흐르고 색이 고왔다. 다른 쪽은 걸이 거칠고 불품이 없었다. 왜 저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물어보니, 고운 도자기는 뜨거운 가마에서 굽는 과정을 거친 것이고 거친 것은 아직 굽기 전이라고 했다. 뜨거운 불을 이겨내는 과정을 거치며 색이 고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사람의 인생도 다르지 않다. 시련을 거치면 한껏 성장하고 내공이 깊어진다. 시련 속에서 인내의 힘을 기르고 긍정하는 생각을 배운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조금 힘들다고 절망에 빠지면 안 된다. 시련은 성장의 발판이 된다.



# 자녀 위한 교육·결혼자금



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잡짓기

이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자녀다. 자녀의 교육자금을 올인하고 있고, 곧 결혼도 어떻게 할까 고민이 계속이다. 아직 자식들에게 작은 집이라도 사줄 수 있는 여유는 없다. 아직 집이 없어 전세와 월세로 생활하고 있다 보니 이사에 대한 부담으로 집에 대한 고민도 많다.

시골에 계신 양가 부모님의 병세도 걱정이다. 지금은 형제들과 심시일반 용돈을 모아서 드리지만 요양원이라도 들어가시면 부담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본인들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시쳇말로 먹고 죽을 돈도 없는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절박함이 큰 분들이다. 그래서 더 힘을 내서 일어나면 감동은 더욱 큰 분들이다. 일단 자식들과의 경제적인 독립을 선언해야 한다.

대학교까지 지원하되 가능한 장학금이거나 학자금대출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하고, 모자라는 것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떠한 경우에도 노

후와 자녀 결혼자금을 혼동하면 안된다. 없는 살림에 자녀에게 지나친 자금이 물리면 그때에는 진짜 자녀분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

회사를 퇴직할 때도 다가오고,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은 안된다. 따라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어야 한다.

특히 최근 명예퇴직이건, 정년퇴직이건 회사를 타외에 의해서 나오는 퇴직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건강보험료다.

이때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면 약 2년 동안 그 동안 직장에서 냈던 건강보험료 평균 수준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는 지역가입자로 되어서 내는 것보다 수십만원가량을 매달 절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활용하시면 좋다. 이는 지역가입자 가입통지가 나온 후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어느 세대보다 보험가입이 중요한 시기이다. 보험이 없을 경우 무리를 해서라도 보험가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50대의 경우에는 건강에 적신호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도록 해야 한다. 노후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지만 자녀들로 인해

본인의 노후에는 그다지 준비가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본인들의 노후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들의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을 때까지 힘들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비용이라도 수입의 10%를 떼어서 자신의 노후를 위한 저축을 시작해야 한다.

10만원을 넣으면 10만원을 받는다는 마음이 필요하다. 급한 마음에 투자를 조작한 투기집단에 또 휘말려서는 진짜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

자녀의 교육자금 때문에 밀려왔던 노후를 지금이라도 시작하면서 해야 할 것은 대출상환이다. 주택담보대출도 있는 데다 신용대출도 있다. 수입은 적고 해야 할 일이 많은 세대이다.

그래서 가능한 맞춤형 부부가 많이 있다. 건강이 허락이 된다면 투잡도 좋다. 더 아프거나 일할 곳이 없어질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노동을 통한 소득을 만들어야 한다. 5년만 집중적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이병호 aT사장, 폭염 속 고랭지배추 현장 점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이병호 사장(오른쪽 첫번째)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 폭염에 따른 채소 수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30일 고랭지 배추 생산지인 강원도 평창의 대관령과 강릉의 안반데기 지역을 시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장은 고랭지 배추 포전을 점검하고, 대관령원예농협 관계자와 농업인들로부터 고랭지 채소의 폭염 피해상황과 함께 작황 및 출하 동향에 대한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aT



이대훈 NH농협은행장, 쪽방촌 찾아 선봉기 기증

이대훈 NH농협은행장과 임직원들이 지난 7월 30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와 '동자동 쪽방촌'을 찾아 폭염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선봉기 200대를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대훈 은행장(오른쪽)이 '동자동쪽방촌'을 방문해 지역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NH농협은행

# 구멍 뚫린 정부조사



기자수첩

박인웅 (유통&라이프부)

올 초 신세계 자회사로 편입된 까사미아의 침구 세트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까사미아 측에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으며 해당 제품 전량을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까사미아는 지난 2011년에 판매한 토퍼 '까사온 메모텍스'를 회수하고 환불 또는 교환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원안위는 1차 조사결과 '방사능 기준치 이하'라고 했지

만, 이어진 2차 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합제품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안위가 조사해 기준치를 넘겼다고 발표한 침대는 전부 2010년 이후 생산분이었지만, 2007년 생산된 대진 침대 모델의 라돈 농도를 간이 측정할 결과 주택 실내 기준치를 넘겼다. 오락가락 하는 정부 발표에 국민들은 비판을 가했다.

한편 라돈 검출 문제로 지난 5월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했지만 당시 까사미아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조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현재 까사미아는 공식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고객 여러분의 상품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안전한 상품으로의 교환 및 환불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믿고

사랑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며 빠른 후속조치를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민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원하고 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진 침대의 '라돈침대' 매트리스 수거가 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 까사미아의 토퍼와 베개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돼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해당 업체와 원안위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워 보이는게 사실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지난 전수조사의 잘못을 인정하고, 라돈 검출과 관련 안전 대책을 만들어 국민 불안을 해소할 것이다.

/parkiu7854@metroseoul.co.kr



신한은행, 실리콘밸리 원정대 2기 발대식

신한은행은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실리콘밸리 원정대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실리콘밸리 원정대는 디지털 금융 선도를 위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으로 신한은행은 디지털과 글로벌 분야에 대한 뛰어난 열정과 개척정신을 가진 직원 4명을 행내 공모를 통해 실리콘밸리 원정대 2기로 선발했다. 신한은행 위성호 은행장(가운데)과 원정대원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

/신한은행



BGF리테일, 김제시 취약계층에 사랑의 도시락 전달

BGF리테일이 지난 30일 김제시와 함께 관내 취약계층에게 CU의 도시락을 무료로 나누는 '사랑의 도시락 전달식'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김영석 BGF푸드 대표(우측 세번째), 박준배 김제시장(가운데), 권경오 김제시일사회복지관장(좌측 세번째) 및 관계자들이 '사랑의 도시락 전달식' 기념촬영을 가졌다.

/BGF리테일

## 인사

- ◆ **헌법재판소** <이동> △ WM반포센터장 최인희
- ◆ **법제처** △ 과장급 전보 △ 운영지원과 송상훈 △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류철호 △ 행정법제국 법제관 김해정 △ 과장급 승진 △ 알기쉬운법령팀장 추명순 △ 서기관 전보 △ 운영지원과 최종훈 △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

- 과 송유경 △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과 오정미 △ 사회문화법제국 유태동
- ◆ **고용노동부** △ 과장급 전보 △ 미래고용분석과장 지영철 △ 노동시간단축지원TF 팀장 하창용 △ 서울관악지청장 한홍수 △ 대구고용센터 소장 배영일 △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김문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파견 박병기

- ◆ **한국과학창의재단** △ 직책승진 △ 과학문화협력단장 최연구 △ 창의융합교육단장 이정규 △ 경영기획단장 직무대행 김형진 △ 연구위원 위촉 △ 창의융합기획실 김윤정 △ 과학영재육성실 조향숙 △ 소프트웨어인재육성실 연경남 △ 전보 △ 과학문화산업기반실장 정원선 △ 기획평가실장 김형진

- ◆ **한국씨티은행** <신규 임명> △ 헌법연구관 배상준
- ◆ **손해보험협회** △ 상무 △ 서영중 기획관리본부장 겸 자동차보험본부장

- ◆ **전남대학교** △ 광주캠퍼스 부총장 한은미 △ 여수캠퍼스 부총장 박상규 △ 교무처장 최환주 △ 학생처장 이재혁 △ 기획조정처장 이

- 상호 △ 교육대학원장 겸 사범대학장 이상권 △ 산업대학원장 겸 공과대학장 고성석 △ 농업생명과학대학장 안기완 △ 자연과학대학장 이항희

## 부음

- ▲ 김동건씨(대한상공회의소 회원관리팀 과장) 별세=30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발인 8월 2일(목) 오전 6시. 02-3010-2261
- ▲ 최용희씨 별세, 육동현(전 한중대 교수) 동한(강원연구원장) 동인(전 청와대 춘추관장) 영화씨 모친상=31일 강원효장례식장, 발인 8월 2일 오전 7시 30분. 033-261-4441
- ▲ 이재도(경북도의회 의원) 씨 31일 부친상. 포항의료원 2층 특실. 발인 8월 2일. 054-245-0444
- ▲ 오차순씨 별세. 남택준(KB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씨 모친상 = 30일, 광주 만평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8월 1일 오전 5시. 062-611-0000

<b>metro 메트로미디어</b>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1721-9800, FAX:021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021721-9851, 9826
독자센터	021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01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104호



올리브영, 저소득층 청소년에 '핑크박스' 나눔

H&B스토어 올리브영은 '핑크박스 캠페인' 2주년을 맞아 지난 30일 오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CJ인재원에서 800개의 핑크박스(여성용품이 담긴 에코백)를 제작해 서울시립청소년건강센터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올리브영의 '핑크박스 캠페인'은 임직원들이 만든 DIY 면생리대 및 일회용 위생용품과 각종 여성용품을 에코백에 넣은 '핑크박스'를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나눔 활동이다.

/올리브네트웍스



“수능 확대는 퇴보”

# 조희연, 교육부 비판... 공교육 혼란 우려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2022 대입개편’ 입장 발표**

교육부-서울시교육청 입장차  
“대입제도 개편의 목표는  
고교 공교육 정상화 기여  
교육부의 자체 학생 개선시안  
미시적인 개선... 더 과감해야”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제28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두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시각차가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국민의 마음을 읽겠다”며 대입제도 개편안 공론화 결과를 3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정시 확대를 반대하는 의견문을 냈다. 대입제도와 초·중·고 교육이 연관된다는 측면에서 대입제도 개편안이 확정되더라도 공교육 현장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1일 의견문을 내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성이 떨어지

는 의제를 정해 대입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냈다.

조 교육감은 의견문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논의가 시작된 이유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고교 교육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라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입제도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고교 학점제, 성취 평가제, 과정 중심 평가 등과 같은 교육활동의 예견되는 변

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듯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2022 대입제도 개편이 일선 학교 교육에 미칠 지대한 영향을 감안해 개편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면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이 ▲고교교육 정상화 관점 ▲대학수학능력 시험 절대평가화 ▲수능 확대는 퇴보 ▲학생부종합전형 과감한 개선 등 4가지 방

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목표와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며 “대입제도를 위해 학교 교육이 있는 것이 아니다. 대입제도 개편의 목표는 대입제도가 공교육 정상화, 특히 고교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여론으로 정하겠다는 것과는 정반대 입장으로 풀이된다.

수능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영어와 한국사 절대평가를 확대해서 전과목 절대평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상대평가에 의한 한 줄 세우기, 성장이 아닌 선발에 집중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고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교육을 통해 구현해 내야 하는 변화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며 “수능 평가방식이 국가평가정책을 통한 학생 교육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의미를 갖는 만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 후 자연스럽게 고교 내신도 절대평가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시와 정시 선발 비중에 대해서는 “수

능 확대로의 퇴보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능 절대평가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자격고사’의 의미를 갖는 수능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현재 수능 확대를 요구하는 기초는 상당 부분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에 기인하고 이는 학종과 고교 내신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지 수능·정시 확대의 과거 회귀로 귀결되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공론화 의제에서 빠져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낸 학종 개선시안에 대해서는 “미시적 개선”이라고 평가하고 “더욱 과감히 해야 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학종 개선 방안으로 학생부 비교과영역 반영의 축소, 학종전형 공론화 위원회 운영, 고교-대학 협력체계에 의한 ‘대입전형위원회’ 운영,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학종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전형의 비율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로 맡겨버리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면서 “공론화 위회의 여러 시나리오에서 수능과 정시 비율을 대학자율에 맡기는 식으로 해서 수능·정시 확대도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강하게 갖고 있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위원회는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시민참여단 속의·토론과 설문조사를 지난 주말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오는 3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학가 소식



지난 30일 삼육대 아트앤디자인학과가 개최한 ‘2018 전국고교생 디자인·미술 실기대회 시상식’에서 김성익 총장(앞줄 왼쪽 세번째) 등 대학 관계자와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육대

**삼육대 전국고교생 디자인·미술 실기대회 시상**

삼육대아트앤디자인학과(학과장 전중범)는 지난 30일 교내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018 전국고교생 디자인·미술 실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육대 일원에서 이틀간 열린 이번 실기대회에는 전국 고등학생 952명이 참가해 △기초 디자인 △사과의 전환 △발상과 표현 △기초조형 등 4개 부문에서 기량을 겨뤘다.

심사 결과 기초디자인 부문 이경영(한영고졸) 씨에게 대상인 총장상이 수여됐다. 금상은 △기초디자인 부문 이상민(교하고졸) 서가은(능곡고) △사과의 전환 부문 조은정(브니엘여고졸) 김미진(심석고) △발상과 표현 부문 김은해(대영고) 김시현(연송고) 학생이 받았으며, 이외에도 은상 9명, 동상 16명, 특선 119명, 입선 354명의 수상자를 선발했다.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 ‘조명하의사 연구회’ 초대회장으로 취임**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호사카 유지 교수(사진)가 지난 23일 서울에서 발족한 ‘조명하의사 연구회’ 초대회장으로 취임했다고 31일 밝혔다.



어졌다.

조명하의사 연구회는 올해 조명하의사 의거 90주년을 맞아, 뜻을 함께한 사람들이 모여 조명하의사 현판을 설치한 것이 계기가 돼 만들

**한성대 캠퍼스타운사업단 성과예술제 전시회 개최**

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는 캠퍼스타운사업단이 8월 1일~10일까지 열흘간 문화특성화 캠퍼스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전시회 ‘성과예술제’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예술가로 참여한 윤세열 작가의 ‘山水(산수)-성북’, ‘인생지사 회전목마’ 등 9명의 작품 총 30여 점이 전시된다. /한용수 기자

성과예술제에는 한성대 캠퍼스타운사업단이 학교 인근 성곽마을의 예술자원 발굴과 지역경제 재성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프로그램인 ‘예술가 레지던시’ 1기

## 직장인 65% “월급받고 16일이면 ‘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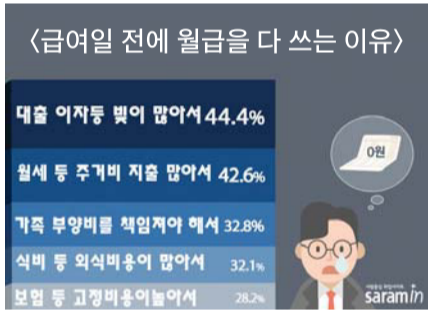
(텅빈 통장)

대출이자 등 주거비 지출 많아  
다음 급여일까지 46만원 더 써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은 뒤 평균 16일이면 다 소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의 텅장 통장을 비우는 가장 큰 지출은 대출이자 납부 등 주거비였다.

31일 사람이 직장인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5%는 다음 급여일 전에 월급을 다 써버려서 어려움을 겪는 ‘월급고개’를 경험하고 있었다. 평균 소진 기간은 16일로 약 보름 정도가 지나면 월급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다.

다음 급여일 전에 월급을 다 쓰는 이유(복수응답) 1위로는 ‘대출이자 등 빚이 많아서’(44.4%)였다. 이어 ‘월세, 공과금 등 주거비 지출이 많아서’(42.6%), ‘가족 부양비를 책임져야 해서’(32.8%), ‘식비, 음주 등 외식비용이 많아서’(32.1%), ‘보험 등 고정비용이 높아서’(28.2%), ‘계획



직장인 600명 대상 설문(복수응답). /자료=사람인

없이 지출해서’(22.1%), ‘문화생활 등 여가에 드는 비용이 많아서’(19.5%) 등이 있었다.

다음 급여일까지 월급 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평균 46만원이었다. 기혼자와 미혼자의 차이가 있었는데, 기혼의 경우 월급 이상으로 평균 51만원을 지출했고, 미혼의 경우 평균 35만원을 월급 이상으로 사용했다. 가족부양과, 육아 등의 이유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월급고개’ 기간 중 지출(복수응답)은 ‘신용카드

사용’(72.1%)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반면 월급고개를 겪지 않는(35%) 직장인들은 그 이유(복수응답)로 ‘계획적인 소비생활’(54.3%), ‘소비활동 자제’(51.9%),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현금 사용’(28.6%), ‘술, 담배 등을 줄이거나 하지 않음’(28.6%) 등을 꼽아 최대한 소비생활을 자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현재 월급에 만족하고 있을까. 직장인 80.3%는 현재 월급이 한달 생활을 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설문 응답자들은 한달 생활을 위해 평균 384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월 급여는 평균 270만원으로 114만원의 차이가 발생해 현실과의 괴리감이 있었다.

한편 최근의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2.7%가 ‘소득에 영향이 없어 상관없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 ‘수업 명장’ 다 모인다... 자유학기제 콘서트

교육부 오늘부터 3일까지 사흘간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자유학기제 우수수업 등을 공유하는 ‘자유학기제 수업 콘서트’를 8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는 자유학기교실수업 변화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에게 자유학기 우수수업 사례를 나누고 확산하기 위해 매년 여름방학 중 실시된다.

올해는 ‘모두의 바람, 즐거운 나눔! 자유학기 수업으로의 초대’를 주제로 자유

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 입상자, 자유학기 수업 및 평가 자료 집필진, 교육청 추천 수업명장 등 50명의 수업명장이 제공하는 60여 개 자유학기 우수수업이 공유된다.

사전등록 또는 현장등록을 통해 약 3000여 명의 교원이 수업에 참여하고 수업명장과 참여 교원이 수업 방법과 경험을 나누고 토론한다.

자유학기제 우수수업 사례로는 경기 동탄중 사회과 신수정 교사의 ‘질문으로 열고 통계와 게임으로 탐구하는 사회과 거꾸로 수업’이 1일 발표되고 수업 영상이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중계된다. 2일에는 서울 명일중 국어과 김선희 수석교사

의 ‘국어 교과서 재구성을 통한 토론하기, 논술하기 등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 융합수업’이, 3일에는 충남 천안 동성중 국어과 한경화 교사의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실현하는 학생 배움&활동 중심 국어 수업’이 진행된다.

이밖에 ‘시를 꿈꾸는 교실’(한양대 정재찬 교수), ‘인공지능시대, 미래의 교육은 어디로 가야하는가?’(한국과학기술원 정재승 교수) 등 특강과 공감톡 공연 등이 진행되고, 자유학기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부 등이 개발한 약 130종의 자료집이 책자 형태로 전시·제공된다.

박준관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도 자유학기를 비롯한 교실수업의 변화가 우리 교육혁신의 즐거운 바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595만원

금강산 길목, 주말 예약 99% (2주전예약), 등기제분양

# 금강산 오션리조트 분양!

여름 성수기 선착순 예약



하늘이 내린 천혜의 비경이 숨쉬는 곳  
 통일전망대·화진포·송지호와 금강산 비경을 간직한 곳  
 하루를 머물러도 안락함을 느낄수 있는 리조트로 초대합니다.  
 ※ 고성 실제 전경입니다.

### 분양특전

- 1) 연간 30일 사용
- 2) 전국 9체인 사용 가능
- 3) 주말예약 99% (2주전 예약시)
- 4) 하계 성수기 예약 접수중
- 5) 안전한 지분 등기제 분양

문의 : 02)541-0113

대우건설이 시공하여 2011년 아시아 경제 신문 리조트 부문 히트 상품으로 선정된 동해안 고성에 위치한 금강산 오션리조트는 국내 바닷가 리조트 가운데 바다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동해 비치리조트로 여름 휴가철이 되면 해변에서 해수욕과 바다낚시, 등산 등 각종 레포츠를 즐길수 있고 힐링 휴가를 즐길수 있는 동해안 휴양지로 거품을 뺀 가격에 분양중이다.  
 금강산오션리조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등기제 분양으로 평생 이용이 가능 하며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하다. 분양가는 패밀러형 53㎡ 595만원, 스위트형 99㎡를 795만원, 로얄스위트형 165㎡ 1,395 만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어 타업체와 비교해 실속 있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품을 완전히 제거 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수 있는 좋은 기회로 선착순 마감한다. 더구나 선착순 30

명에게는 무료숙박권 20매 해수사우나 이용권 30매를 증정 한다니 관심 가질만 하다.  
 또한 제주도 리조트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을 위하여 제주도내 제휴된 골프장 5곳을 준회원 자격으로 사용가능 하고 필리핀 세부 일본 니가타 말레이시아에 골프와 리조트를 회원대우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금강산오션 리조트는 100%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등기제로만 분양을한다.  
 금강산오션리조트는 직영 리조트인 동해 리조트와 제주 리조트 외에도 도고나주 지리산 경주 설악 덕구 등 전국 8개 지역에 리조트를 사용할 수 있다. 금강산오션리조트 정회원이 되면 가입과 즉시 가족 카드 5매가 발급 되어 가족 친지들이 함께 연간 30일을 정회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법인 가입시에는 무기명 카드가 제공되어 사원 후생 복지로

사용가능 하다. 위치가 동해안 고성 바닷가에 위치하여 여름 휴가시에 인기가 좋아 창을 열고 나서는 바닷가 백사장으로 여름 휴가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분양 가격의 반값으로 동해 바다 위에 떠있는 듯한 별장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입금 선착순으로 바닷가 객실을 우선 배정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수 있다.

문의: 02)541-0113 신청금 50만원  
 국민은행 469301-01-127-122 (주) 미봉

금강산오션리조트는 공정거래 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 사용과 관광진흥법상 적합한 등기제로 분양합니다.



제주리조트

## 해발 3,000m 골프 라운딩



드라이버 거리 30 YARD 더 멀리!

옥룡 설산 골프 5일 179만원

(항공료, 식사, 숙박 2인1실, 그린피, 카트, 캐디피)

### 해외골프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레이크 사이드 C.C 5일 135만원  
(항공료, 숙박 2인1실, 식사, 그린피, 캐디비, 미팅 센딩비)

<중국>

위해 호당가C.C 3일 599,000원  
(항공료, 숙박 2인1실, 조·석식, 그린피, 전동카트)

겨울 성수기 조기예약 특가 / 조기 마감 주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9일 139만원  
(항공료, 5성급 호텔 2인1실, 식사, 그린피, 전동카트)

<일본>

아시아나 항공 이용

북해도 루스츠 4일 139만원 ~  
(항공료, 호텔 2인1실, 조/석식, 그린피 + 카트피, 송영비)

니가타 청광아이즈 4일 119만원 ~  
(항공료, 호텔 2인1실, 조/석식, 그린피 + 카트피)

라오항공 이용

라오스 부영C.C 7일 99만원  
(항공료, 리조트 2인1실, 식사, 무제한 그린피)

필리핀 클락 뉴아시아 7일 99만원  
(항공료, 리조트 2인1실, 조/석식, 무제한 그린피)

사이판 라오라오베이C.C 5일 85만원 ~  
(항공료, 호텔 2인1실, 조식, 그린피(노캐디), 전동카트)

포함사항 : 골프 2회 (36H), 콘도 1박, 조식  
**국내골프 (7월말 ~ 8월 초 1박 2일)**

평창 휘닉스C.C 272,000원 ~

용평 버치힐C.C 285,000원 ~

해발 600m  
 횡성 웰리힐리C.C 27만원 ~

설악 썬밸리C.C 265,000원 ~

원주 오크밸리C.C 27만원 ~  
 여수 경도C.C 345,000원 ~

IL tour 02-541-4242

## 사우나 집에서 즐긴다

캐나다산 적삼목으로 만든 핀란드 수출용 국내 출시



5~6인용

원적외선 사우나

캐나다산 적삼목  
 원적외선효과  
 저온온도조절  
 인체공학적인설계

- 세포재생 및 혈액순환 향상
- 인체항균작용 및 성인병 치료 효과
- 체중조절 효과 및 운동부족 해소 효과
- 영양분해 공급 및 피부미용에 탁월한 효과
- 피로회복 및 스트레스 해소



2인용 290만원

전원 주택, 아파트 거실, 기숙사, 연수원, 마을회관, 헬스클럽, 펜션

농림, 캠핑 허우스 24시간 상담 가능  
 리치하우징 문의: 1544-6299

## 양평 전원 주택지



대지 66㎡ 건축 125㎡ / 매가 4억 9천만원 (2층 철골)  
 대지 726㎡ 건축 125㎡ / 매가 4억 8천만원

서종면 노문리  
 7,723㎡ 12억  
 3.3㎡ 48만원

서종면 수입리  
 870㎡, 구옥 82㎡ (구옥)  
 매가 : 395,000,000원  
 3.3㎡/150만원  
 즉시 신축 가능

옥천면 신복리  
 대지 495㎡  
 매가 : 175,000,000원  
 3.3㎡/110만원  
 토목공사 완료  
 전원단지 주차 박스

서종면 노문리  
 대지 300㎡  
 매가 : 195,000,000원  
 3.3㎡/100만원  
 토목완료, 즉시 건축 가능

문의 02-543-1177



# 비핵화, 김정은으로선 모험... 핵포기 시장가격 탐색중

## 휴전선 없는 한반도

(2부)

### ①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열강 틈바구니에서 질식해간 한반도가 분단 70여년만에 새 드라마를 쓰고 있다. 제목은 '한반도 평화체제'다. 하지만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상황은 풍전등화다. 북한 비핵화와 경제 제재 완화는 지지부진하다. 지난달 30일 합정역 인근에서 만난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금 핵 포기의 시장가격을 알아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처음부터 모든 카드를 내려놓을 수 없는 북한의 입장을 존중할 때,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북미 간 약속 이행을 강조했지만, 현재 후속 회담이 순조롭지 않다. 연내 종전 선언은 가능할까.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상황이 무거워졌다. 북한은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모라토리엄(무기시험 중단), 유해 송환 4가지를 양보했다. 반면 미국이 종전을 내어주면, 유엔군사령부와 정전 체제, 주한미군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회담 당시 굉장히 낙관한 듯하다. 그런데 이것이 실무자의 관행적 기싸움으로 제동이 걸렸을 수 있다."

### 北 '선 포기 후 보상' 못 받아들여

- 조영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4일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이전이라도 종전 선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를 두고 안일한 태도가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미국은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 전에 내어 줄 카드가 없다. 북한이 원하는 북미 수교, 평화 협정, 제재 해제 등은 출구 단계다. 북한이 전부 포기한 다음 미국을 믿어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볼 때, 미국은 종전선언과 제재 해제를 먼저 줄 수 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지는 북한에게 가역적인 조치다. 반면 종전선언은 비교적 가역성(可逆性)이 적다. 북한은 먼저 4가지를 양보했으니 그 다음 미국이 종전 선언을 돕고 나면 비핵화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다.

북한으로서의 끝까지 가는 제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북한도 2022년 경제 5



북한도 성과 있어야... 체재 보장에 종전 선언 의미 커  
미사일 발사장 해체, 종전선언 메시지·비핵화 출발선  
CVID는 모욕적... 자발적 폐기 후 감시체제 만들어야

개년 계획이 있다. 그때까지 어떤 성과도 없으면 곤란해진다. 북한은 체재 보장에 있어 종전 선언도 의미가 크다."

- 북미 간 대화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 올 가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나.

"9월 유엔 본회의에서 남·북·미·중 정상이 만나면 되는데 물리적으로 어렵다. 미중 관계도 냉각이다. 김 위원장이 과연 종전선언 하나 받으려고 거기까지 가겠는가. 그 전에 어떤 타결이 있어야 한다.

문 대통령이 평양에 가고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대화의 연속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북한이 종전 선언 하나 때문에 거액이 드는 국빈급 초대를 할까.

제일 좋은 시기는 유엔에서 종전선언 하고,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가 이어지는 때다. 지난해 12월 결의된 2397 제재안에는 '끝낸다'는 말만 있지 않다. 유예와 조정, 강화 등이 있다. 조건부 완화 정도로 끌어내면 된다. 북한이 이전으로 돌아가면 제재를 재개하는 '스냅백'을 하면 된다.

트럼프가 미국내 여론을 돌파해야 한다. 비핵화 이전까지 대북 제재를 풀지 않으면, 북한도 못 움직인다. 북한은 자발적 핵 포기 이후 정권이 무너진 리비아를 생각하고 있다."

### 약속 없던 미사일발사장 해체, 종전 과정 삼아야

- 북한의 4가지 조치 중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 해체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

"북한이 6월 12일에 약속한 내용이 아

니다. 선의로 하는 일인데 검증이 안 됐다. 부족하다고 하는 태도는 순서에 맞지 않다. 북한은 (일련의 과정을) 할 테니까 종전선언 하라는 메시지다. 한국은 종전 직후 북한이 할 일을 합의하는 과정을 끝내야 한다."

- 그것이 비핵화인가.

"비핵화의 출발선이다. 북한은 '우리가 이만큼 갔으니 미국도 나와라' 하는 태도를 견지한다. 같은 단계를 밟아가자는 의미다."

- 종전 선언 다음은 뭐가.

"프론트 로딩(front loading·전진 배치)이다. 북한의 선제조치이다. 핵 신고서 제출과 사찰과 검증이다. 미국과 북한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북한은 기존 시설 폐기를 먼저 하고, 미래 핵 개발도 안 한다는 입장이다. 핵무기는 이미 완성됐으니 마지막에 처리한다는 의미다.

반면 미국은 완성된 무기 폐기를 먼저 하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걸 버리면 마지막 카드가 없어진다. 그래서 한국은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적어도 미국이 원하는 ICBM 정리 정도는 하라는 입장이다."

### 북한 압박, 미국에겐 '딜레마'

- 그런데 미국이 정말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는지 의문이다. '위험한 북한'은 주한미군을 포함한 동북아 군사 전력 배치와 영향력 행사에 명분을 주고 있지 않은가.

"미국의 전략일 수도 딜레마일 수도 있다. 우선 전략적으로 미국의 목적은 중국 봉쇄다. 이를 위해 한·미·일 군사 협력 동맹이 있는데, 북한 도발이 정당화

를 시켜준다.

딜레마는 북한 핵 문제가 미국내 정치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이 말하는 전세계 비핵화에 대한 도전이다. 이용 가치가 있으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 일각에서 1975년 헬싱키 협정을 이야기한다. 동서 냉전 종식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에 참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진보 정부는 헬싱키 프로세스의 교류 협력 활성화를 강조한다. 반면 한국 보수와 미국, 일본은 인권을 앞에 세운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 전에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다.

양쪽 다 순서 문제이다. 하지만 왜곡된 주장이 많다. 헬싱키 협정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차'다. 평화 공존, 불가침을 먼저 하고 인권을 다뤘다. 지금 앞 부분에 요구되는 것이 많은데, 거기에 인권과 생화학 무기도 다 넣으면 북한이 움직일 리 없다."

### CVID는 '북한 굴욕' 신화 자발적 폐기가 먼저

- 미 공화당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에 대해 군사적 옵션을 계속 가져가야 한다고 한다.

"CVID는 일종의 신화 혹은 근본주의 처럼 되어 버렸다. 북한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단어다.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는 모양새가 되어야지, 미국의 압박에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되면 정권에 위협이 된다.

미국이 모든 조건을 인질로 만들면, 북한이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작동 가능한 CVID(Operational CVID)를 주장한다. 일단 북한의 자발적 핵 폐기를 C(완전한)로 받아들이야 한다. 그 다음에 북한이 핵 개발을 재개 못하는 감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짧은 시간 안에 비핵화

를 할 수 있다."

- 감시체제는 어떻게 만드나.

"북한이 다시 NPT에 참여하든, 중국·러시아·한국·미국·일본의 다자 감시 체제를 만들면 된다. 북한이 체제 보장을 안심하기 전까지 핵 개발 인력과 기술을 없애는 건 무리다. 북한도 마지막 카드는 있어야 하지 않나. 우선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다자 감시 시스템을 만들면, 그때 북한이 기술자 해체 등을 할 수 있겠다. 북한이 물리적으로 2년 시한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 김정은의 비핵화는 '모험' 시장가격 맞춰야

- 혹자는 북한의 상황을 자동차에 비유한다. 북한이 고생해서 중형차를 만들었는데, 그 차를 포기하면 신형 고급차를 준다는 제안을 과연 받아들일지느냐는 논리다.

"뜨거운 논쟁거리다. 그런데 선대와 달리 수십년을 살아야 할 김정은은 비전 문제에 직면했다. 지금 핵 포기에 대한 가격이 얼마인지 시장가격을 알아본다고 생각한다. 값이 맞을 때 핵을 포기할 수 있다. 자동차 비유는 너무 극단적이다."

- (김정은이) '나도 얼마든지 가격적일 수 있다'라는 의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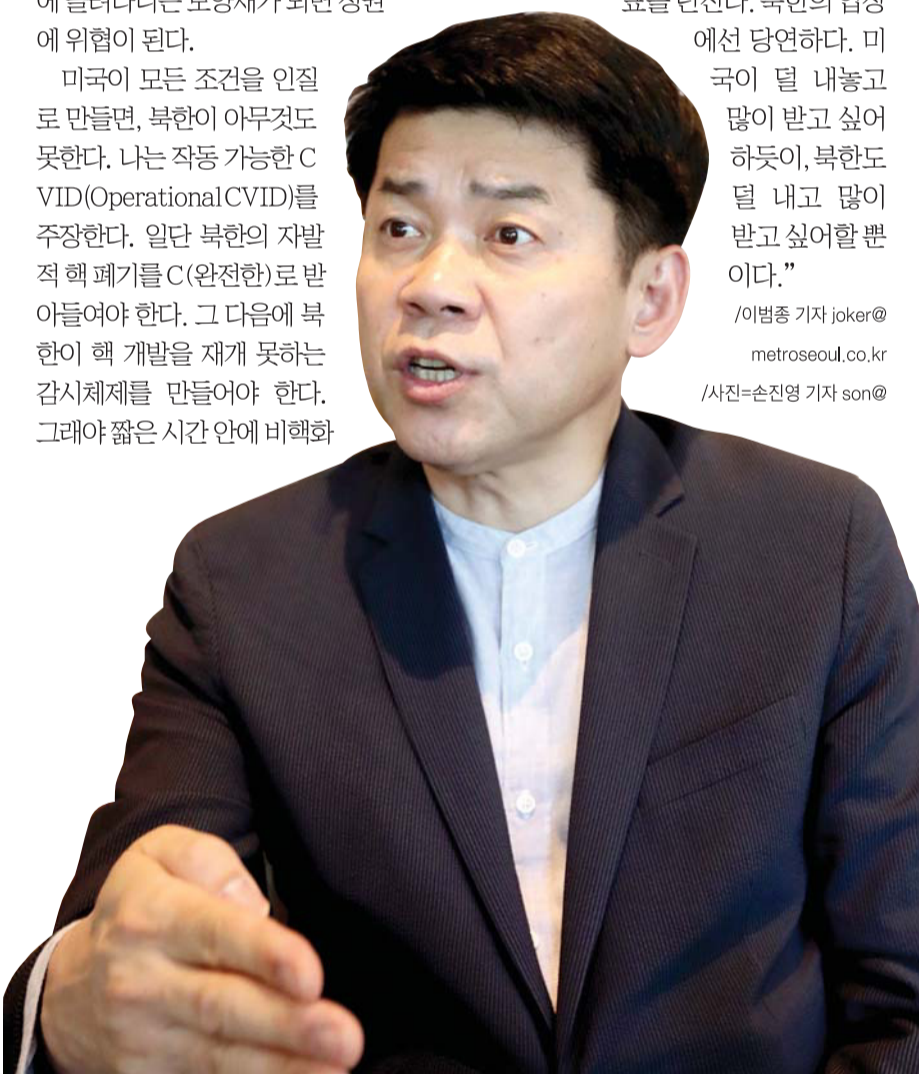
"미국과 우리는 북한이 '핵 포기한다 해놓고 왜 질질 끌지'라는 의문 표를 던진다. 북한의 입장

에선 당연하다. 미국이 덜 내놓고 많이 받고 싶어 하듯이, 북한도 덜 내고 많이 받고 싶어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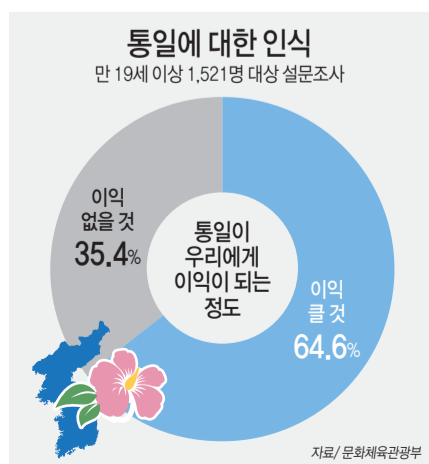
/이범종 기자 joker@

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 국민 80% '통일' 가능하다... 위협적이지만 협력 대상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남북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은 '통일로 인한 이익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자 '협력해야 할 대상'이란 상충된 인식이 공존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이와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한미, 북미관계에 우선해 '남북관계'가 중요하다는 의

견이 월등하게 나타났다.

3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주요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15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웹 조사(CAWI: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포인트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문체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문체부는 격월 간격으로 이 조사를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3.5%는 장기적(79.6%) 혹은 이른 시일 내(3.9%)에 '남북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로 인한 이익이 클 것'이라는 응답은 64.6%로, 국민 상당수가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주민을 한민족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은 83.6%로 '그렇지 않다' (16.4%)라는 응답을 크게 상회했

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78.4%) ▲우리가 경제해야 할 대상(70.2%)이라는 부정적 응답과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77.6%) ▲궁극적으로 통일의 대상(76.3%)이라는 긍정적 응답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북한에 대한 상충된 인식이 공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의 향후 변화에 대해 적극적인은 소극적이든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은 85.1%로 높은 반면,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33.7%)보다 '포기하지 않을 것' (43.2%)이라는 부정 전망이 우세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 한여름 밤 외국인들이 가장 가고싶은 궁궐 '창덕궁'



한여름 밤 창덕궁 전경 /서울시

서울시·관광재단, 야간개장 선호도 조사  
창덕궁 이어 경복궁·창경궁·덕수궁 순

한여름 밤 외국인이 방문하고 싶은 서울의 궁으로 '창덕궁'이 가장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서울관광 공식 페이스북과 웨이보를 통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궁궐 야간개장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약 43%가 한여름 밤 가장 방문하고 싶은 서울의 궁으로 '창덕궁'을 선택했다. 이어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31일 서울시가 발표한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7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댓글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로 한다. 설문에는 총 356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한여름 밤 찾고 싶은 서울의 궁으로 창덕궁(156명)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경복궁(121명) ▲창경궁(46명) ▲덕수궁(21명) 순이었다. 참여자 중에는 중국어권 외국인이 197명(중국어번체 110명, 중국어간체 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어(101명), 일본어(58명) 사용 외국인이 참여했다.

이은영 서울시 관광사업과장은 "가장 전통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라는 말처럼, 서울의 고궁은 대다수의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가장 인상 깊게 둘러보는 장소"라며 "시 공식 관광정보 사이트인 비짓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궁궐의 야간개장 소식 외에도 다양한 서울 관광 정보를 만나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metroseoul.co.kr

## 17층 규모 홍대입구 복합역사 이달 개방

철도시설공, 연면적 5만4235㎡  
업무·숙박 상업시설 내달 운영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 지상 17층, 건물 전체 면적 5만4235㎡ 규모의 복합역사 사업이 준공돼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3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업무시설, 숙박시설, 상업시설이 입주하는 홍대입구역 복합역사는 사업 주관자를 애경그룹으로 선정해 2014년 착공했다. 복합역사는 애경그룹이 업무시설을 사육으로 사용하게 돼 애경산업 등 6개 계

열사가 8월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294실 규모의 호텔과 판매시설은 내부 인테리어를 마치고 9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민간재원 1640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의 건설 기간에 연인원 15만명이 투입됐으며, 앞으로 상시근로자 500명이 근무하게 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철도공단과 서울시는 2010년 경의중앙선 지하화에 따라 용산체육문화센터~가좌역 간 6.3km의 도심구간 선로 상부 부지를 지역 친화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

기 위한 협약을 맺고, 2016년 10만2천㎡ 부지에 경의선 숲길 공원 조성을 마쳤다. 홍대입구역역을 포함한 이 구간의 주요역사 상부부지 4곳 중 공덕역은 지난해 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서강대역과 공덕역 인근 철도시설부지 개발 사업은 서울시와 마포구의 인허가를 추진 중이다. 은찬운 철도공단 자산운영단장은 "홍대입구역 복합역사 등 국유철도 부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점용료 등 수입은 국가철도건설 부채상환 재원으로 활용돼 국가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 "車엔진 식혀줄 냉각수 점검하세요"

서울시, 휴가철 차량관리법 등 소개

조명 작동 확인·안전용품 구비하고  
졸음운전 예방 2시간마다 휴식해야

폭염이 연일 지속되면서 여름 휴가철 차량 관리와 졸음운전 방지 등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시가 31일 휴서기 차량관리법과 발생하기 쉬운 교통사고 사례를 소개했다.

우선 여름휴가를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려면 출발 전 차량 점검이 필수다. 타이어는 무더위로 달궈진 아스팔트에 직접 접촉하는 만큼 고온으로 인한 변형 가능성이 높다. 마모상태 확인은 물론 공기압을 평소보다 10% 높게 충전하는 것이 국지성 호우나 태풍 상륙 시 수막현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뜨거운 엔진을 식혀줄 냉각수 점검도 빼놓지 말자. 점검은 엔진이 완전히 식은 상태에서 해야 한다. 후드 아래 모든 벨트와 호스도 온도변화에 민감한 고무소재에 균열이나 절단의 징후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차량의 모든 조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양쪽 와이퍼에 마모되거나 찢어진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자. 정비 잘 된 차량도 방심하지 말고 차량안전 용품을 구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휴가 등으로 장거리 운전이 많은 8월에

는 대형사고로 연결되기 쉬운 졸음운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2시간마다 휴식하고, 휴식 시에는 단순히 운전대를 놓는 것이 아니라, 휴게소, 졸음쉼터 등을 이용해 잠시나마 수면을 취하는 것이 피로회복과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또한 여러 명이 한 차를 타고 가는 경우 차내 이산화탄소 증가로 졸음운전을 유발할 수 있다. 에어컨 작동 시에는 차량 공기를 외기순환 모드로 유지하거나 주기적으로 외기순환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여름철에는 차량 내 온도가 에어컨을 끈지 불과 10분만에도 50° c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에어컨 성능을 꼭 확인하자. 높은 온도는 운전자의 인지·반응속도를 저하시켜 사고 위험을 높인다. 또 어린이 동행 시에는 어린이가 차량 내에서 짧은 순간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내운전도 예외는 아니다. 여름철에는 무더위를 피하느라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야간 및 새벽시간대에 보행인구가 평소보다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시간대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낮 시간대(10시~16시)에 비해 해질 무렵부터 늦은 저녁사이(16시~22시) 교통사고가 100건 이상 더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진희 기자



"물벼락 맞으며 폭염 극복해요"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31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버랜드에서 열린 여름 축제 '썸머 워터 펀'을 찾은 시민들이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위안부 피해자' 위한 국악공연

국가 기념일 지정 첫 행사

지난해 정부는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은 첫 기념일이 되는 날이다. 8월 14일은 1991년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이다. 2012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 의해 '세계 위안부의 날'로 지정됐다. 그 후 2013년부터 민간에서 실시하던

기념행동이 올부터 국가 기념일로 제정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령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첫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기념한 인문예술 강연·공연 행사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 44회 인문예술콘서트 오늘에 영화 '귀향'의 조경래 감독과 '판소리공장 바다소리'의 공동대표 최용석 대표를 초대해 이들의 국악공연을 마련했다. /오진희 기자

## 시청 앞 '빗물놀이터' 11일까지 연장운영

서울시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2018 서울 물순환 시민문화제' 기간에 운영하던 빗물놀이터를 오는 8월 1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연이은 폭염 속에서 빗물놀이터는 이 행사 기간 중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시는 빗물놀이터를 추가 운영기로 결정한 것. 서울광장 서측에 설치된 빗물놀이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풀장과 워터슬라이드 각 2개, 탈의실 및 그늘막 텐트로 운영한다. /오진희 기자

오늘의 날씨

8월 1일

음력 : 6월 20일

수도권 날씨

39 ~ 28°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해돋이 / 05:36 | 해질 / 19:41

연천 24/37

동두천 25/38

백령도 24/33

파주 25/37

가평 24/39

서울 28/39

양평 25/39

인천 27/37

수원 26/38

용인 26/38

평택 26/3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산업] LG유플러스 '아이들나라 2.0' 출시 05

[휴전선 없는 한반도]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L6



서울시가 340억원을 들여 지은 '돈의문 박물관 마을'이 주먹구구식 운영과 저조한 관람객 수로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와 종로구의 소유권 정리가 끝나지 않아 제대로 된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정식 휴관일이 아닌 일요일에도 문을 열지 않아 방문객 수가 점점 줄고 있다.

# '철거-재건' 비운 언제까지... 발길 끊긴 돈의문 유령마을

## 되살아나는 서울

### ④ 돈의문 박물관 마을

#### ◆돈의문 박물관 마을은 어떤 곳?

'의의를 북돋는 문'이라는 뜻을 가진 서울의 서쪽에 있는 돈의문은 태조 5년 한양 도성을 쌓을 때 세워졌다. 도성 사방 4개의 성문(숙정문·돈의문·송례문·흥인지문) 중 하나인 돈의문은 임진왜란 중 소실됐다. 이후 속중 때 재건됐지만, 일제 강점기인 1915년 전철 공사를 이유로 다시 철거됐다.

서울시는 돈의문 터가 남아 있는 정동사거리 인근의 마을 전체를 리모델링해 9770㎡ 규모의 '돈의문 박물관 마을'을 조성, 지난해 9월 개관했다. 박물관 마을에는 조선 시대부터 2013년 철거 전까지 돈의문 일대의 역사가 담겨 있다.

마을에는 사라진 동네의 역사와 골목문화를 기록해 놓은 '돈의문 전시관', 한옥을 되살려 문화 체류 공간으로 활용한 '한옥체험시설', 공공건축문화와 역사를 보존해 놓은 '서울도시건축센터', 예술가와 디자이너가 시민들과 생활예술을 실천하는 '공방·문화 골목' 등이 있다.

#### ◆휴관일 아닌 일요일도 문 닫아

지난 22일 오후, 박물관 마을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 시간을 돌아다닌 끝에 어렵게 만난 방문객 김진희(47) 씨는 "여기에 박물관 마을이 있다고 해서 조카들을 데리고



22일 오후 박물관 마을 시설 중 하나인 서울도시건축센터는 방문객이 없어 한산했다.



휴관일이 아닌 일요일에도 박물관 마을 내 음식문화센터 '키친레브쿠헨'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 돈의문 터 남아 있던 정동사거리 340억 혈세 들여 전체 리모델링

### 서울시 vs 종로구 다툼에 운영 뒷전 시설 문 닫아 방문객 발길 돌리기도 2020년 준공 완료까지 협의 예정

왔다"며 "그런데 전시실 문이 거의 다 닫혀있어 볼 만한 게 정말 없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실제로 이날 박물관 마을에서 문을 연 곳은 돈의문 전시관과 서울도시건축센터 등 일부 시설뿐이었다.

나카가와 히데코 등 요리연구가들이 쿠킹 클래스를 운영하던 음식문화센터 '키친레브쿠헨', 헌 옷과 재활용품 등을 활용해 새 옷을 만드는 친환경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헌옷 리뉴얼센터 '레코드' 등의 문은 전부 굳게 닫혀있었다.

돈의문 박물관 마을 운영 팸플릿에 따르면, 공방·문화 골목에 있는 두 센터들의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경남 거창에서 온 이모(53) 씨는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멀리서 왔는데, 한옥이고 뛰고 문이 다 잠겨있다"면서 "운영을

안 할 거면 왜 비싼 돈을 들여 만들어 놓은 것인지 궁금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시가 돈의문 박물관 마을에 투입한 세금은 340억원이다. 박물관의 공식 휴관일은 월요일이지만, 공방, 전시관 교육관, 한옥 등 대부분의 시설이 일요일에도 문을 열지 않았다. 서울시의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이날 박물관 마을을 찾은 시민들은 황금 같은 주말 오후를 날려야 했다.

#### ◆서울시 vs 종로구, "누가 가져갈지..."

동네 주민 김모(47) 씨는 "서울시랑 종로구가 박물관 마을 소유권을 두고 다투고 있어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이게 들어서면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상권도 살아나서 동네가 좀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전보다 썰렁해졌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어 "차라리 원래 계획대로 박물관이 아닌 공원이 생기는 게 더 좋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물관 마을이 위치한 신문로2가 일대 부지는 지난 2014년 돈의문뉴타운 조합이 정비사업구역에 경희궁 자이 아파트를 짓는 조건으로 종로구에 기부채납한 곳이다.

서울시는 한양의 사대문 중 하나였던 돈의문과 성벽 아랫마을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이 일대를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기부채납 받은 부지의 용도를 공원에서 문화시설로 변경, 철거되기 전까지 교남동과 새문안동네의 역사를 살려 마을 전체를 박물관으로 만들었다.

지난해 서울시는 계획 단계서부터 예산 투입, 마을 조성 등 전부 시에서 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종로구가 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받은 공원 부지는 해당 자치구 소속이라며 맞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박물관 마을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30일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완료 후 조합이 해산하면 땅에 대한 소유권은 그때 가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건물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공원은 구에서 관리하지만, 박물관 마을이 문화시설로 되어 있어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아직 결정난 건 없다"며 "2020년 6월로 계획된 준공 완료 시점까지 협의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